

목 차

■ 발표문

- I. 「항일여성독립운동과 충남 여성」 1
(신 영 숙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 II.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이야기」 19
(김 중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토론문

- I.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91
- II. 문 희 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97
- III. 위 기 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101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학술심포지엄

-충남,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14:00~16:30

장소 : 충남도서관 문화교육장 강당

사회 : **강정숙**(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위원)

시 간		내 용
13:45 ~ 14:00	15'	단편영화 상영 '충남여성 독립을 외치다 아산 김복희 열사' ※ 단편영화 '충남여성 독립을 외치다 아산 김복희 열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공모 사업으로 도고들빛사랑협동조합이 제작했습니다.
14:00 ~ 14:05	5'	국민의례
14:05 ~ 14:10	5'	인사말 (김희선 본회 이사장)
14:10 ~ 14:15	5'	사회자 강정숙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위원)
14:15 ~ 14:55	40'	발표 1. 신영숙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14:55 ~ 15:35	40'	발표 2. 김종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15:35 ~ 15:48	13'	토론 1.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48 ~ 16:01	13'	토론 2. 문희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6:01 ~ 16:14	13'	토론 3. 위기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16:14 ~ 16:29	15'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16:29 ~ 16:30	1'	기념촬영 및 마무리



발표문
I

항일여성독립운동과 충남 여성

신영숙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항일여성독립운동과 충남 여성

신 영 속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머리말

일제의 야만적 침략은 동학혁명의 진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를 기하여 물밀듯이 몰려왔고, 여기에 저항, 투쟁하는 우리의 민족운동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구국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여성의 교육운동은 전 민족의 애국계몽운동과도 같은 맥락에서 활발히 있어 왔다. 이같은 활동을 디딤돌 삼아 1913년 송죽회의 결성, 1919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단체 활동은 여성도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민족의 일원으로 당연히 동참하고자 하였던 데서 비롯한다.

그같은 흐름의 핵심이 바로 1919년 3.1혁명이었다. 다시 말하면 1919년의 전국에서 일어난 남녀노소 모두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을 계기로, 동시에 ‘하늘의 절반’ 여성의 참여의 성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헌법 조항에 남녀평등이 명기되고 민주공화국임이 선포되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은 1927년 5월에 창립된 좌우여성통합체 근우회에서도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여성들이 힘을 모았다. 또한 1945년 광복 후 건국운동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계속되어 최근 2001년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동시에 제정된 남녀평등헌장 안에 여성이 국가와 민족의 주체로,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100년을 이어온 여성해방, 곧 가부장제 철폐 운동은 일정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문제 의식도 가지고 이 발표를 하고자 한다.

1. 초기 항일여성독립운동

1) 여성해방사상의 맹아

개화기 일부 여성들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혼인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양반 여성과 평민여성 간에 여전히 신분 차이를 드러내는 호칭이 사용되어, 양반여성은 당호(堂號)를 붙였고, 평민 여성은 성씨 뒤에 召史(조이)를 붙여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의 호적제도라는 일본식 호주 중심의 가족제, 식민지적 가부장제의 기초로 강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은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깨닫고 종래의 봉건적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싹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당시의 진보적인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구 선진 사회의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적 힘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는 이미 종래의 입신양명적 형식에 치우친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위에 기초한 실학사상이 등장한 지 오래였고, 천주교를 비롯한 서구사상도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천주교 사상은 억압받는 피지배층 민중, 특히 여성들에게 종래의 차별적이고도 폐쇄적인 생활로부터 자각과 의식을 일깨우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충남 내포 출신의 강완숙 골롬바는 선교와 함께 여성의식의 변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1882년 미국과의 수교로 공인된 개신교는 이후 여성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여성 생활 변화에 참신한 자극을 주고 있었다. 종래에 가정에 묶여있던 여성들이 기독교와 접함으로써 학교(1886. 이화학당 등)로, 교회로, 사회로 점차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유길준 등 일찍 신사유람단으로 서구 문물을 보고 온 개화파 인사들이 소개한 서구여성들의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동학사상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도 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동학은 봉건적 신분제 타파 의식과 더불어 여성도 아이도 남성과 똑같은 한울님으로, 여성의 인격이 남자와 동등한 것임을 전파하였다. 여성도 득도할 수 있다고 하여, 적극적인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성용 교리서를 통한 일종의 여성의회계몽운동은 여성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밖에도 여성에게 위생교육 등 합리적인 생활교육과 태아에서부터 성장기에 이르는 자녀교육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의 모성보호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결국 동학농민전쟁의 성과인 1894년 갑오경장에서 조혼과 여성의 재가금지가 제도적으로 폐지되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

2) 여성교육과 사회진출

개화기 여성의 보다 큰 특징은 여성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교육에 있다. 아직 제도적으로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당시 여성 교육은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았다. 독립신문은 물론 당시 제국신문, 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각종 언론기관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여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어서 여자교육회의 『여자기념』, 자선부인회의 『자선부인회잡지』, 그밖에도 신민회의 『가정잡지』 등 여러 사회단체의 회지와 여성용 잡지들이 모두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인간화 내지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구하였다.

초기에 설립된 사립여학교는 기독교계와 민간인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교를 위한 기독교계 여학교로는 1886년의 이화학당을 비롯하여 배화학당, 정신여학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 수녀들의 교육활동도 1880년대 후반 이후 일정하게 증가해 갔다. 또한 북촌 양반층 여성들이 최초의 여성교육 단체 찬양회를 결성, 1898년 9월 '여학교설시통문(여권통문)'이 발표되고 이듬해 순성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확산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의 뒤를 이은 엄비도 여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여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낸 것은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후원단체나 뜻 있는 몇 사람의 협력으로 사립여학교가 상당 수 설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대부분 운영 경비의 부족과 교사확보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나마 진명, 숙명, 동덕여학교 등이 성장해 갔다. 당시 여성교육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부국강병, 애국계몽의 일환임을 천명하고 근대적 성역할 분담론에 서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관립여학교는 1908년 한성고등여학교 설립 이후 1914년에 가서야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평양여고보와 경성여고보에 보통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과가 부설되어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여성교육의 성장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맞물려 있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서구나 일본에 비해서도 조선의 여성 교육은 거의 한 세대 정도 뒤져있었다.

어쨌든 이른바 근대화 사회로 점차 나아가면서 여성도 가정 밖으로 나와 종전과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 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즉 1900년 조선정부 전환국에서 최초의 여공 15명을 모집하였고, 1901년 한성제직회사의 여공모집이 이어졌다. 이제 여성이 제조업노동자로 고용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자영업, 특히 상공업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들도 등장하였다. 예컨대 일찍이 부인경제회를 조직하여 부인들의 경제활동을 권장하며 조주(造酒), 조장(造漿), 재봉 등 종래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행하던 사업을 실업적으로 회사를

조직하여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밖에도 자혜부인회 같은 여성단체는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수공을 가르치고 기술을 전습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자활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3) 여권운동과 구국투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도 여성해방의 기운은 싹트고 있었다. 부모의 압제나 강요에 의한 잘못된 혼인 즉 조혼, 축첩, 강제혼, 매매혼 등 각종 혼인의 폐해가 이제 비판받는가 하면, 극히 일부일지라도 신식 혼인 내지는 혼례 간소화가 추구되기도 하였다. 혼인을 둘러싼 각종 폐단에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우회(女友會)'라는 이름 아래 조직적으로 경복궁 앞에서 축첩 반대를 위한 여성들의 연좌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여성운동은 축첩과 조혼 반대 등을 통해 여성의식을 계몽하는 동시에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나갔다. 이는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항일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전국의 의병운동에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의 시해라는 일제의 야만적인 폭거에 분노를 느끼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농민 장군도 죽창을 앞세워 일제에 항거한 구국투쟁에 여성들도 나선 것이다. 여성들은 바로 의병들의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을 뒷받침하였을 뿐 아니라 강원도 춘천이나 충청도 제천 등지의 여성들은 몸소 의병 투쟁에 나섰다. 춘천의 의병장 유인석의 조카며느리 윤희순은 의병장이 되어 스스로 조선의 청년들을 독려하는 의병가, 청년가 등을 지어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주위의 여성들을 모아 자신들도 무장 투쟁에 나섰다. 그는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이자 자녀를 둔 어머니로 집안의 일을 감당하면서 '안사람 의병가'로 여성의병을 독려하며 구국 투쟁에 나선 여성 영웅이었다. 남편이 의병항쟁에서 죽은 뒤 그는 만주로 망명하여 여성교육 기관 노학당(勞學堂)을 설립하는 등, 아들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 일생을 마감함으로써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모범이 된 여성이었다.

또한 1907년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은 청일 전쟁 당시부터 조선에 적극적인 차관공세를 펼쳐 두 차례에 걸친 수백만 원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차관 공세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더욱 노골화되어 이미 조선은 수천만원의 차관을 지고 있었다. 조선의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

는 일제 차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은 실로 시급한 과제였다. 1907년 2월 중순 대구의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이 우선 남성들에게 단연(斷煙)이란 담배 끊기를 통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였다. 양기탁과 베렐(Bethell, E.T. 裴說)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가 꾸준히 이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전국에서 ‘국채보상’의 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연말까지 계속된 이 운동에 대구 여성은 물론 전국의 여성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국채보상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남북촌 부인들의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김일당, 김석자 등의 부인감찬회, 대구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 진주 애국부인회 등 단체를 조직하여, 금반지, 비녀, 은수저, 은장도 등 각종 패물뿐만 아니라 바느질값까지 의연소(義捐所)에 보내졌다. 안중근과 함께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여사도 동참한 것은 물론 평양, 부산, 강화 등 전국 각지에 30여개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국권 수호 내지는 국권회복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채 보상을 위한 계몽적 활동과 직접 모금 운동을 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나누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당시 노동자·기생·백정 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구국 대열에 나선 이 운동은 그야말로 범국민적 기부운동으로 오늘에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나 1908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이같은 사회 참여는 이들에게 자긍심 내지는 주체 의식을 고양시켰으며 더 나아가 일정한 민족의식, 여성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의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그 절실함이 있었거니와 그를 통해 사회와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서서히 일깨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평양 송의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1913년 비밀단체 송죽회 여성들의 항일투쟁 활동은 이후 1919년 3.1혁명에 조직적 지역 기반이 되기도 할 만큼 의미가 컸다. 이같은 초기 항일여성들은 교육과 실천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의식과 항일 정신을 키워나갔고, 이후 여성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2. 1919년 3.1 혁명과 항일여성독립운동

일제 시기 여성운동은 한국 사회가 근대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로 변화, 비상하고자 하는 열망과 맞물려 있다. 우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 이전부터 싹터온 여성해방의 기운이 일반 기층 여성에게도 점차 확산되었고, 이른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여성들의

다양한 여성 단체의 조직과 활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갔다. 즉 여성도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동시에 서구 페미니즘이라는 여성해방론도 일정하게 수용됨으로써 1920년대 여성운동이 활발할 수 있었다. 여성운동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민족주의운동과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여성이 해방되어야 하는 양대 과제를 떠안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식민지 사회의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운동과 맞물려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여성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퍼져 나갔으나 일제의 탄압과 여성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의도한 만큼 큰 성과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독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교육과 의식화운동, 생존권 투쟁과 항일독립운동, 무장 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1) 3.1혁명(항일 운동)

1919년 3월 거족적인 항일 만세 시위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한 운동으로 민족 민중의 봉기였다. 이 때 여성도 여학생 등 신여성뿐 아니라 기생, 농촌여성까지 전국 곳곳의 여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적극 동참하였다. 유관순 열사 등이 옥중에서 순국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여성들은 이미 개화기 이후 여성교육운동을 비롯한 애국계몽운동 등에 참여한 저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3·1혁명은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에 참가했던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나혜석 등이 전국을 돌며 이미 평양에서 조직된 송죽회 등 여성단체들을 토대로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3.1혁명은 반제반식민 민중 봉기로 세계사에서도 그 규모를 자랑할 만한 비무장 투쟁으로, 중국의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당시 세계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1차 세계대전의 종식에 이어 민족자결주의라는 사상적 선풍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다. 그 회오리와의 같은 바람을 타고 조선 민중이 과감하게 일어나 일제에 비폭력으로 항거하였다는 점이나 여성들의 대거 참여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의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성들은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1919년 4월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를 돕기 시작하였다. 군자금 모금과 송금, 국내와의 통신 연락, 수감자와 가족 보살피기 등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조직이 발각되면서 김마리아를 비롯한 여성운동가들이 검거, 투옥되었다. 계속해서 항일여성들은 물산장려운동과 농촌계몽운동 등에 참여, 여성의 의식계몽과 한글교육 등에 주력하게 된다.

2) 교육운동과 생활개선- 민족주의계

1920년대 여성운동은 크게 기독교 중심의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뉘어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족주의계 여성들은 실력양성운동에 발맞춰 여성교육과 함께 국산품 애용, 여성경제 활동 장려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차미리사의 조선여자교육회 등 교육단체와 YWCA 등 기독교여성 단체, 그리고 여자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여성의식계몽, 민족의식 고취, 여권 향상 등을 위해 각종 강연, 토론회, 야간 강좌, 야학 개설 등에 힘썼다.

차미리사가 주도하여 1920년 창립된 조선여자교육회와 여자시론사는 여성의 의식 계몽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연회, 강습소를 개최하여 정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여성들을 교육하였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야학을 열고, 격주간으로 『여자시론』을 발간하는 등 여성 교육에 주력하였다. 이보다 좀 늦은 1922년 4월 발족한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는 빈민 하층 여성을 대상으로 정종명 등이 회원 30 여명에게 일정하게 재봉과 바느질 등 노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데 힘썼다.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여 여성에게도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전국 각처에서 여자청년회 등 일반 사회 단체와 함께 행한 여자 교육운동은 활발하여, 예컨대 인사동 태화여자관, 여자엠플, 여자기독교청년회 등에서도 음악, 무용 등 각종 공연을 겸한 토론회와 강연회로 여성교육, 계몽운동은 당시 여성운동의 견인차가 되었다.

또한 1929년부터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문자보급운동, 1931년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도 방학을 이용한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촌여성들에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 때 물산장려운동에도 여성들이 참여하여 명주나 무명옷만 입는 등 국산품 애용에 앞장섰다. 1929년 3월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가 주최한 물산장려 선전대강연회에 황에스터는 연사로 참석하였다.

1932년 12월에는 3년 전부터 각 여학교 교원 중심으로 활동한 망월구락부를 일정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조선직업부인협회’로 개편하였다. 이들은 직업소개, 훈련, 저금, 사교, 조사, 농촌부 등을 두고 직업여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처럼 3·1운동 전후 시기 여성 운동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비교적 컸다. 이화, 정신 등 기독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은 이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 계몽운동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전시기를 맞으며 총동원체제에 편입되면서는 대부분 변질되어 일본어 보급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일제의 여성 교육 목표는 시종일관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현모양처주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5년이란 긴 세월의 전시 총동원체제 하 여성교육은 곧바로 일제의 왜곡된 현모양처나 군인 양산을 위한 모성이 강요되는 '총후'(후방)여성, 그리고 전시 노동훈련과도 같은 교육으로 한층 변질, 강화되어 갔다.

3) 여성과 사회 해방- 사회주의계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은 1924년 허정숙, 주세죽, 박원희 등이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함으로써 가시화되었고, 각 지방에서도 여자청년동맹 같은 여성단체가 많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내세운 여성동우회의 강령은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입(立)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을 기함, 본회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함"으로 여성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신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의 실현에 두었다. 창립된 지 1, 2년 사이에 각 지방에 40여개 여자청년회를 조직, 활동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성여자청년동맹은 유산계급과 여성종교단체의 썩은 정신주의에 대항하여 여성해방과 사회(주의)운동을 표방하고, 1925년 1월 창립하였다. 투쟁적 교양, 조직적 훈련, 무산 여자청년의 단결과 상호부조를 주목적으로 3.8 국제부인데이에 회원 20명이 모여 조선무산부인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그 날의 의의를 널리 선전하였다. 그밖에도 인천 여청동맹, 평양여성동맹 등 다수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1925년에 조선여성해방동맹과 허정숙, 김필순 등 북풍계의 경성여자청년동맹, 박원희, 김보준 등 서울파의 경성여자청년회가 결성되었고, 1926년에는 프로여성동맹이 있었으나 1926년 중앙여자청년동맹으로 통합되었고, 곧이어 1927년에 근우회로 발전적인 해체와 통합을 하게 된다.

이상의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은 당시 세계적 조류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소수 지도층 여성의 열의는 컸으나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근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 것은 이 여성들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여성 해방이나 사회 해방을 위해서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4) 여공의 생존권 투쟁

1920년대 민중여성의 각성과 생산직 여성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사업과 고무공업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조직적인

노동운동은 1920년, 30년대 초에 격렬히 일어났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피하겠지만 선미여공, 고무여공, 제사 및 방직 여공 등의 다양한 제조업 여공 파업은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과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크고 작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강주룡이 주도한 평양고무여공들의 파업만 소개하기로 한다.

평양의 평원고무공장에서는 1931년 5월 28일 파업이 시작되어 29일 새벽 강주룡이 모란대 공원 안 지상 20척(약 6.5미터) 높이의 을밀대 지붕위에 올라가 임금 감하 반대 파업을 선동하며 격렬한 연설을 하였다. 평양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공 투쟁을 벌인 것이다. 30일 구류처분을 받은 그는 78시간 식음을 전폐하며 침묵 항의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사리원에서 온 그의 언니에게 인도했으나, 공장에서는 그를 포함, 직공 14명을 해고하고 새로 취업한 여공들이 작업하게 하였다. 그러자 강주룡 등 검속 직공 4명은 단식동맹을 시작하였다. 6월 4일 평양 백선행기념관에서 다시 2,000명의 고무직공 대회를 개최하고 파업자금을 모금하였다. 빗속의 전차로에 들어가 신직공의 출근을 저지하고, 자동차에 투석하는 등 동맹 파업에 금강, 국제 고무 여공 200여명도 합세하였다. 마침내 기업주들은 임금 인하는 더 이상 없기로 하고, 20여일간의 파업이 해결되었다. 당시 그는 비합법노조운동의 평양노조사건에도 가담하여 검거된 후 미결수로 4개년의 옥중생활 끝에 병사하였다.

그밖에도 부산 지역 등 고무여공 파업은 기업측의 조직적인 담합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연대가 비교적 잘 이뤄짐으로써 자본에 적나라한 대결 양상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동반한 기혼여성들이 더 끈질기게 버텨냄으로써 장기간 단식 동맹 등의 과격한 행위들로 치열한 생존권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충청도에서는 대전의 군시제사공장뿐만 아니라 조치원, 예산 등지의 제사여공 파업 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근우회와 여학생운동

3.1혁명을 기념하는 1920년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 등 곳곳에서 여학생들의 만세 시위와 숙명여학교 동맹 파업 등 여학교, 여학생 운동도 1920년대 상당한 전개를 보인다. 암튼 일제 최대의 여성 조직이라고 하는 근우회(槿友會)는 1926년 12월에 김활란, 손메레, 방신영 등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민족주의계 여성과 정종명, 박원희 등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통합여성단체를 조직하는데 뜻을 모은 데서 출발하였다. 마침 1927년 민족유

일당으로서의 신간회가 조직된 데 이어 근우회도 전 조선 여성의 통합조직으로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5월에 창립되었다. ‘무궁화 자매 모임’이라는 뜻의 근우회의 지도부에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신여성들이 함께 하였고, 회원들로는 여학생은 물론, 직업여성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여성이 망라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적극적인 탄압과 내부 노선의 이점은 1930년부터 근우회 해소론을 야기시켰고, 끝내 이를 타개하지 못한 근우회가 신간회의 해소에 이어 유아무야됨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3·1운동 이후 10년 만에 일어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속에 1930년 1월 서울 시내 사립 중등학교 봉기는 특히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여고보를 비롯하여 계속 동덕여고보, 숙명여고보, 경성여자미술학교, 경성실천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태화여학교 등 각급 학교 여학생들이 근우회의 지도 아래 일제히 쫓기하였다. 즉 서울 학생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을 보면 1월 현재 구속학생 총 380여명 중 여학생이 100여명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계속된 여학생 동맹 휴학 등 학생운동은 주로 무자격 교원 및 일인 교사 배치, 시설 충실과 학생에 대한 대우 개선, 일제 축제일인 기원절, 명치절 등의 식전 기피 및 봉축가의 불합창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같은 1930년 전후의 여학생 운동의 배후에는 1920년대 초기부터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이 컸으나 이같은 사회주의 운동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해외로 망명하거나 지하에 잠입함으로써 전시체제 아래 활동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4. 여성무장투쟁과 해외 여성운동

3.1혁명 후 고무된 민족 정신은 1920년 '여참모장'으로 이름을 떨친 조신성 같은 여걸도 배출하기에 이른다. 그는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 평안남도 맹산, 영원, 덕천 등 3군의 여러 청년들을 모집하여, 일제 순사 및 친일파 암살을 기도하고, 경찰서 군청 면소에 사형선고서 협박장과 경고문 등을 보내 대대적으로 조선독립사상을 선언, 전파함으로써 일본 관헌과 친일세력을 위협, 공포에 떨게 하였다. 실제로 일제의 자금을 탈취하는 의거도 행하던 중 체포, 수감되었다.

한편 일제의 본국 일본에서는 초기 재일 여자 유학생들은 조선의 여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하면 교육단체를 도와 순회강연 등에 참여하였다. 3.1운동에

앞서 도쿄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을 할 때 여자유학생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정화를 비롯하여 대한애국부인회 등이 재건되어 지속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국내외 연락책임 등 국경을 넘나들며 치열한 활동을 벌였다.

이같은 여성독립운동은 미주 방면에서도 활발하였다. 일찌기 미국으로 간 한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민족이란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한인국민회, 동지회 등 한인 단체를 조직하여 멀리서도 민족 독립을 꿈꾸었고, 여성들도 미주의 대한여자애국단, 한인부인회, 하와이의 부인구제회 등을 조직,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고 독립 자금 모금에도 힘쓰는 등 한인사회에 협동과 상조정신을 심는 데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1910년 하와이 사진신부가 도착하면서 조선인의 미주 정착은 본격화되어 갔다. 이들은 혹독한 노동 생활 중에서도 자녀 양육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힘쓰는 한편 민족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여성(김도연 등)과 여성단체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단지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중국과 만주에서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의 무장 투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제의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전시기가 길어지면서 항일무장 투쟁도 그만큼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와 홍구공원 의거를 함께 한 이화림(李華林)뿐만 아니라 “여자 안중근”이라고도 불리는 남자현의 항일의열활동을 비롯하여,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부인이자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1944년 순국한 박차정의 예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또한 1940년 중경 임정 산하의 1940년 한국광복군에 입단한 여자광복군의 활동은 본격적인 항일전을 준비하면서 모병 선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선유공작, 군사 훈련, 통신병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 앞장 섰다. 오광심과 지복영 등 여자광복군의 헌신도 컸다. 이들 여성의 무장 활동이 때로는 실패, 좌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신과 실제 활동은 한국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5. 충남여성의 항일독립운동

2019년 11월 기준 총 서훈 독립운동가 15,825명 중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7명, 4위에 들어간다. 경상도가 가장 많은 참여로 3,467명, 그다음이 전라도, 평안도, 이어서

충청도로 높은 순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성은 이에 비해 낮은 편인 듯하다. 어쨌든 오늘의 민족평화통일운동이나 모든 사회운동에 여성의 참여와 결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안에 충남여성독립운동도 위치지어질 것이다.

1) 초기 충남 항일여성독립운동

천주교가 일찍이 충남 내포 등 금강을 타고 들어오면서 강완숙 등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여성은 주지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동학운동도 여성이 남성과 같이 사회적 인간임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1882년 미국과의 수교로 공인된 개신교도 충남 내포 지역에 들어온 미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 충남 지역 여성의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미감리회 여선교사 샤프(Alice J. Hammond Sharp, 史愛利施)가 1905년 공주에 미 북감리회 해외선교회 선교구가 설립된 후 영명여학교와 1907년 영명학교를 설립하면서 충남여성에 대한 신식 교육을 시작하였다. 여성을 상대로 성경학교와 야학으로 한글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기독교의 근대교육 기관이었던 영명여학교는 체육과 음악에서 더욱 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신식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거부감은 여전하여 공립여고보는 공주와 대전 단 두 곳뿐으로 1919년 3월 당시에도 거의 일본인 여성이 다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도 일찍이 깨어 일어난 민중 여성들의 투쟁들은 있어 왔다. 예컨대 양반의 계급적, 경제적 지배에 저항한 1862년 회덕 진잠 농민항쟁을 비롯하여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여성들이 참여하거나 협조하였으며, 대한제국 시기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에 참여한 여성의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1906년 홍주 의병운동에 83명의 죽음 속에 여자가 4명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의병항쟁에서 식사, 빨래, 화약 제조 등을 담당했던 여성들이었다. 이는 어쩌면 이 지역의 성리학적 도덕관, 정절의식이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항일투쟁에 참여, 한 몫을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대전 충남 지역이 위정척사와 의병운동이 활발함으로써 여성도 의병운동의 뒷바라지 또는 보조로라도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1907년 거국적인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충남 여성의 예도 있다. 흔히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의 여성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남 여성들이 이에 앞서 대전 원정리에 최초의 모금소를 설치하고, 대전 여성 절미운동을 벌여 쌀과 돈을 기부하였다. 이어서 예산군 의연금 모집소, 호서국채보상기성회, 금산군국채보상동맹, 진천군 광혜원 내 국채보상부인회 등의 보상소가 설립되고 아산군의 부인이 20원을, 양소사도 12원을 매일신

보사에 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양, 평택, 영동 등지에서도 호응한 결과 총복이 37,786 원, 총납이 156,693원을 모금하여 전남북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당시 충남지역이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이 낮기는커녕 오히려 열악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들 여성의 참여는 더욱 돋보인다. 이처럼 이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충남 여성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실천적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2) 1919년 3.1 혁명의 충남 여성

충남여성들이 항일투쟁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예는 무엇보다 1919년 3.1혁명 때였다. 예를 들면 유관순과 가족들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박회숙(루이사)은 영명여학교 보통과의 1회 졸업생으로 1915년에 설치된 영명여학교 고등과에 입학, 1917년 졸업 후 이화학당에 편입하였다. 1919년 4월 1일 공주 읍내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체포되었다. 당시 19세의 그는 영명여학교 학생을 동원하는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유관순의 사촌오빠 유경석(영명학교 졸업)과 결혼한 노마리아는 영명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또한 교사 조화벽이 유관순의 오빠, 유준석(관옥)과 결혼한 인연 등으로 3·1혁명에 온 가족이 참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후 이 학교가 유씨 집안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주의 원명보통학교의 여교사 김현경은 태극단에 가입한 후 영명학교 교사 이규상, 이화학당의 박회숙과 영명여학교 상급반 학생 유준석과 시위를 계획하였다. 4월 1일 영명여학교 여학생들이 선봉이 되어 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 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영명여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시장으로 나가 참가하였으며, 4월 5일까지 천안 입장의 광명학교 여학생, 아산 염치의 여교사와 여학생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임영신의 제자였던 민원숙, 황현숙, 한도숙, 양대여숙의 삼숙이란 별명을 가지고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애라가 남편 이규갑과 함께 만주 등 오가며 활동하다 1922년 순국, 김애일라(이순, 이규갑과 재혼)의 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3.1혁명에 참여한 박화숙, 김유실(15세, 부친 자결) 등은 아직 서훈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3·1혁명의 주도층은 20-30대 젊은 청년층으로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과 남녀 농민들이 주류였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주로 여교사와 여학생이 주축이 되어 공주, 천안,

아산 지역 등에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햇불만세운동을 주도한 점은 타 지역과 다른 특이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편 3.1혁명 이후 항일민족운동에서는 예산의 박헌영을 비롯하여 여성 중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박원희, 고명자 등이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두드러지게 참여한 예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 또는 여성운동을 표방한 여성단체 활동 등은 1919년 이후 활기를 띠고 나타나는 것은 드문 편이다. 예컨대 1927년 조직된 통합단체 근우회의 지방 지회도 충청남북도에는 하나도 없다. 만주까지 지회 설립이 60여개에 이른 근우회에서 유독 충청북도만이 지회가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다. 1929년 전국순회 강연에 충남 대전과 충북 청주가 포함되어 실시하였다고 하는데도 지회 설립이 안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의문을 던져보게 한다.

3) 충남 여성독립운동의 특성과 의의

3.1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남여성들에 비해 이후 항일투쟁이 침체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는 3.1만세 시위에서 유관순의 부모와 김구응과 그의 모친 최정철, 이소제 등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그 희생이 너무 컸던 탓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충남 출신 여성 정정화, 이애라, 3숙으로 불린 한이순(한도숙), 황금순(현숙), 민옥금(민영숙) 등 서훈된 20명 여성 중 12명이 3.1 혁명 참가로, 1930년 서울여학생운동 참여가 3명, 중국과 만주 등지에서 활동한 사람 3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결국 충남에서 서울로, 만주로 등 이주, 망명하여 항일 투쟁을 해나갔다. 또한 그 배경으로는 충남 여성교육이 활발하지 못한 탓에 서울 등 외지로 여성들이 나간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동학농민전쟁에서 공주 우금치의 비참한 패배와 의병 항쟁의 치절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사회 운동에의 참여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래도 오늘날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병천의 유관순 열사의 사우, 오늘 건립한 항일여성상, '혁명전야' 등을 통해 일제 시기 민중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공부할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 충남 여성들에게 뜻있는 삶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나가며

이상에서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여성의 항일구국 투쟁 등을 대강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들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남성들과 함께 해왔다. 때로는 독립운동에서나 여성운동에서 성과도 거두었고 발전도 이루었다. 마침내 종전과 함께 맞이한 8.15 광복은 실질적인 민족이나 여성해방에 앞서 미소 점령이라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해방 문제는 여전히 국가와 민족 문제 앞에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왜곡, 은폐되기 쉬웠고 그 성과를 누리기에는 아직 여성의 힘이 그만큼 성장, 축적되지 못한 것 같다.

한편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의 문제점 또는 제한점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가부장제의 유산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잘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서훈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지역별 분류를 하자면 그 기준은 본적지에 둔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본적이 친정에서 시집으로 옮긴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된 활동 지역에 따른 고려도 할 수는 있으나 필요에 따라 옮긴 경우가 많아 이것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문헌 자료 자체가 흔치 않은 데다 호적상으로도 출생년도, 출생지 등등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어쨌든 당시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이후 여성의식을 성장케 하는 확실한 기반이 되어 여성의 정체성은 확립되어 갔다. 마침내 여성의 해방과 민족의 독립은 병행되어 이뤄져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이자, 과제로 설정되어 사회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이것이 앞에서 본 바 천주교, 동학, 개신교 등을 통한 여성과 사회의식화의 성과로 갑오개혁이 이뤄지고 이후 찬양회(여우회)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 송죽회, 여자유학사회로 이어졌다.

거국적인 3.1혁명의 발발은 애국부인회에서 근우회까지 사상, 이념을 초월한. 전체 여성의 단결과 통합을 기하며 여자광복군에 이르도록 항일투쟁을 전개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 통일 그 날까지 모든 여성의 자각과 실천운동이 없으면 민족과 여성의 미래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편,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하)』, 2007
- 강정숙, 「여성운동」, 『(신편)한국사 50.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김경일 외,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方善柱,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 웨이 패터슨, 정대화 옮김, 『하와이 한인 이민 1세-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들녘, 2003
- 신영숙,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 늘품플러스, 2015
- 신영숙, 「근대의 여성, 반식민지 해방전선에 나서다」,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 무늬, 2016
- 신영숙, 「개화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충남여성」,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9
-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 이덕희, 『하와이 이민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M&B, 2003
-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국학자료원, 2014
-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한국가톨릭여성사』, 가톨릭출판사, 2008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 2005
- 윤지현, 「1920~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 역사』, 제 10집, 2009. 6.
- 조형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 연구 2 -개항에서 3.1운동까지」, 『여성학논집』, 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2
- 최숙경, 이배용, 신영숙, 안연선, 「韓國女性史 定立을 위한 女性人物 類型 研究 3__3.1運動 이후부터 解放까지」, 『여성학논집』 10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3

**발표문
II**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이야기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이야기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들어가는 글	21
2. 배용순, 침묵 속의 투쟁	23
3. 정정화, 전쟁 뒤편의 삶	32
4. 유관순, 자유를 향한 불꽃	46
5. 조화벽, 끝나지 않은 싸움	56
6. 김현경, 안주하지 않은 운동가	68
7. 이애라, 꺾이지 않는 열정	79
8. 향후 과제와 전망	88

1. 들어가는 글

- 한 명의 의사와 열사가 있기 위해서, 또 그 이전에. 알려지지 못하고 죽어 나간 많은 사람과 그들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다양한 역할을 하며 싸워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의사나 열사적인 삶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의로운 삶을 살다 간 다중의 삶의 양식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다.
- 여성독립운동가의 경우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전면에 나서 활동하기 어려웠으며, 남성독립운동가에 편중된 기록과 연구들에 의하여 묻히거나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역사 속에 묻힐지도 모르는 충남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삶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3.1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독립운동가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필적하는 사람의 삶과 생애를 다루고자 한다
- 3.1운동 혹은 여성 독립운동 하면 우리나라와 충남에는 유관순이라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있다는 점에서 3·1 운동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유관순 외에는 마땅히 기억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3·1 운동 및 독립운동을 주도하거나 기여한 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여정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손자녀들인데 이들의 연령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억이 조금이라고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정리하여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윤봉길의 아내 배용순과 가족들은 윤봉길의 거사 이후 일제 치하에서 말 못할 치욕과 고통을 견디면서 힘든 생활고를 이어가면서 치열한 내면적 삶을 살았으며, 공주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교한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한 김현경은 정신여고, 영명학교, 이화학당 등 당대 최고의 여성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으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았으며, 정정화는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자신의 삶과 임시정부의 삶 간에 경계가 없을 만큼 독립운동에 헌신적이었지만 독립 후에는 남편의 납북 사건 등으로 힘겨운 삶을 견디어 내야 했고, 조화벽은 여성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남편 유우석의 독립운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유관순 동생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운동을 삶의 마지막까지 수행하였으며, 이애라는 신앙인과 지식인으로서 애국부인회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모진 고문과 고초로 해외에서 젊은 나이에 의거하는 등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거쳤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여성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가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았던 윤봉길 의사의 아내 배용순,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했던 김현경, 임시정부의 재정과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던 정정화, 부부 독립운동가 이애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충남의 여성 독립운동의 아이콘인 유관순, 여성독립운동가이면서 유관순 가의 지지와 지원으로 평생을 헌신한 조화벽의 삶과 생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배용순, 침묵 속의 투쟁¹⁾

가. 들어 가는 글

- 1932년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들은 윤봉길의 피 값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지원도 받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들 말한다. 윤봉길 의거 이후 해외의 항일운동은 큰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내에 남겨진 윤봉길 의사의 가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생존하였으며 그 뜻을 지키고 싸워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가 없다.
- 독립운동이란 한 명의 열사와 의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알려진 싸움이 있기 전후로, 또 한 명의 알려진 투사의 존재 전후로 많은 사람의 희생과 조력과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것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배용순 선생의 삶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가려진 독립운동의 이면을 밝히고, 이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싸워온 민중들을 기리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낸 사람들도, 매일매일 어쩌면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어디 저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뭐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 하면 저는 그런 말 해요. 여기서 우리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대한독립만세 하고 만세를 부른...부르잖아,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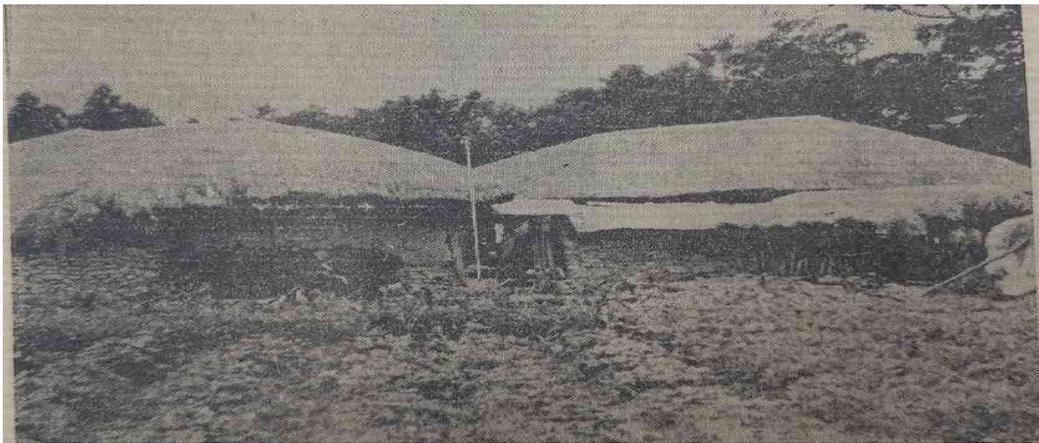
나. 배용순과 윤봉길의 결혼

- 배용순의 나이 14살, 윤봉길의 나이 15살, 둘은 충남 예산군 덕산의 이웃한 마을, 2·3킬로미터 떨어진 세심천이라는 시내를 끼고 형성된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서 결혼을 했다. 같은 지역이라 혹시나 연애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증매로 결혼을 했다.

1)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봉길·배용순의 손녀 윤주경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윤주경은 조부는 윤봉길(독립운동가), 조모는 배용순, 아버지는 윤종(前 대한민국 농림부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기관단체인으로 제10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충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지역의 매파 소개로 필경은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했을 거라고 손녀 윤주경은 말한다.

얼굴을 보고...그리고...그...는 아닌 거고...근데 이제...어느 댁에...무슨...뭐...뭐...저이...처녀가 있다, 어느 댁에...이제 뭐...동네에서는 누구네가...누구네 애는 어떻게 하고...막...얘기를 하다가 이제...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중매를 했다는 거 보니까...그 당시 매파가 있는 거잖아요. 매파가 이제...에. 저 집...뭐...처녀 어떠세요? 가서 또 물어보고, 저 집 총각 어떠세요? 양쪽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증조 할아버지죠, 윤봉길 의사의 아버지가 가서 보고...뭐...부모들끼리 하여튼 얘기를 해가지고...결혼식을 한 거죠, 옛날에는.



〈저한당 옛 집〉

- 윤봉길이 태어났던 집은 도중도에 있는 생가인데, 지금은 조경이 잘돼 있고 땅을 돋우어서 멋진 곳으로 변모됐지만, 윤봉길 탄생 시기에는 물길로 둘러 쌓인 섬이라 하여 도중도라 하였다. 장마철이 되면 집이 물길에 잠기곤 했다. 그 만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곳이라고 한다. 윤봉길 아버지 윤희는 윤관의 후손으로 덕산 도중도에 정착을 시작했을 시기에는 그 집이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당시는 매우 가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윤봉길의 아버지, 배용순의 시아버지 윤희는 열심히 일해서, 도중도에서 2.3킬로미터 떨어진 저한당으로 이사했고, 농지 등 토지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 윤봉길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서당에 보내기도 하고 독선생을 붙여 한학을 배우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배용순이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다.

다. 배용순에게 남편 윤봉길이란

- 배용순을 평생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 머나먼 길을 향해 길을 떠나는 남편 윤봉길에게 한 마디 인사도 못하고 보냈다는 사실이다. 배용순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남편 윤봉길이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배용순은 그냥 물 한 바가지 떠서 남편 윤봉길에게 건네주고선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게 남편 윤봉길에 대한 배용순 최후의 기억이다.
- 윤봉길 의사는 흥커우 공원에서 거사가 있기 이틀 전에 두 아들 모순²⁾과 담³⁾의 이름으로 아내 배용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배용순을 맹자를 길러낸 맹자의 어머니에 비유했으며, 결혼 후 예산의 덕산에 거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을 할 때는 아내 배용순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는 아내 배용순과 남편 윤봉길 간의 상호 신뢰하고 믿는 정신적 교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워낙 다정한 모습으로 가르쳤기에 이로 인해 가족들의 시샘이나 눈총을 받기도 한 모양이었다.
- 여느 날처럼 가끔은 신작로에 나가서 혹시나 누가 오나 지켜보다가 들어오고, 베틀에 앉아서 시름을 달래며 길쌈을 하던 어느 날 군화의 발자국 소리들이 동네를 흔들고 집안으로 쳐들어 왔다. 바로 흥커우 의거가 일어난 직후의 일이다.
- 그런 난리가 일어나고 얼마 후 배용순은 남편 윤봉길의 사형 소식을 접하게 된다.
- 25살 나이로 남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남편 윤봉길은 배용순에게는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 배용순은 남편 윤봉길의 시신이 광복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까지 남편 이별하고 떠난 남편 윤봉길을 가슴에 묻고 함께 살아 오다가 남편 윤봉길의 유골이 송환되어 고국으로 돌아오자 비로소 남편의 죽음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2) 호적에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집에서는 모순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편지에서도 종이 아닌 모순이라 칭한 것이다. 그런데 윤봉길 사후에 혹시 모순이란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집에서도 모순이가 아닌 종으로 불렀다고 한다. “모순이가 저희 아버지 이름인데...저희 아버지...오늘 아침에도 또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네. 저희 아버지 이름이 모순인데, 그.에서 종, 종이라는 이름, 호적엔 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고 부르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나빠서, 모순이라는 이름이 나빠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는 모순이라는 이름을 안 썼나 보더라고요. ”

3) 담은 둘째 아들인데 어려서(7살 혹은 9살) 복막염으로 죽었다고 한다.

라.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의 삶

- 윤봉길 의거 후 배용순이 가장 힘들었을 경우는 당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윤봉길의 자녀라는 이유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인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일제식민지의 탄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남편을 대했기에 젊은 혈기에 남편이 집을 나갔느냐며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댁의 타박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용순은 차라리 죽으려고 곡기까지 끊으셨다고 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자긴 더 살고 싶, 살고 싶지 않다고 굶고 두, 안 드셨어요. 곡기를 끊으셨는데. 며느리가 잘했으면 아들이 나갔으랴 이런 생각을... 완전히 완전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셨다고 들었.

- 그래도 그런 시부모라도 계셨기에 그나마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말에 배용순이 얼마나 큰 마음 고생을 했으며, 그 마음고생을 평생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시부모 때문에 배용순 할머니가 힘들어 하셨다는 말도 손녀가 할머니 사후에 할머니를 대신해서 연구진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았다. 혹시나 집안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안타까워하며 힘들게 말하며,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소상히 말해 주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계시니까...그니까 뭐...되게 뭐...배불리 먹고 사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깐...뭐...굶지 않을 정도로...그냥...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지으시는 분이니까...밥은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손자, 공부시켜야 된다...뭐...(중략) 그러니까, 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장이 어느 날 사라지니까 이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풍비박산이 나는데, 윤봉길 의사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윤봉길 의사의 아버지, 어머님이 딱 집안에 버티고 계시니까 풍비박산은 안 되는 거죠.

- 남편 윤봉길이 물려 받아야 하거나 물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 받지 못한 배용순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둘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잃어 버렸단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 각오로 서울에 가서 찬모 일, 바느질까지 하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일하는 동안 큰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다시 예산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 배용순은 예산에서 길쌈, 바느질, 빨래 등 무엇이든 하면서 돈을 벌었고, 시어머니가 낳은 남편 동생까지 건사하며 살림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친정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등쌀에 친정에서도 마음 놓고 며칠을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막내할아버지 경우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거 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떠나시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애...아이를 낳...둘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낳아 가지고, 시어머니 산후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는 거죠...뭐...그게...어...아들 기르고 사는 건데...이제...아까 그 둘째 아이가 일찍...이제...돌아가셨다는데...둘째 아이가 복막염으로 이제...돌아가신 건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아...내가 이렇게...이렇게...여기서...가사노동에 대해서 누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 없죠, 밥은 먹고 사는데, 내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내가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 큰아들도 언젠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둘째 아들처럼 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서울로 일하러 가셨대요. 그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의 집 살이 하..했겠죠, 뭐...찬모나 뭐...뭐...바느질 잘하는데...찬모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그래서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 없다고 우는데, 하여튼 뭐 쉬지 않고 우니까, 잘 자지도 않고 우니까, 저러다가 인제 큰 손자 큰일나게 생겼으니까 가서 사람시켜가지고 다시 애가 풀이 말이 아니니까 애마져 죽게 생겼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할머니가 이제...오셨대요, 도로 오서 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큰아들 바라보고 사셨나 보더라고요.

- 배용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그게 평생 습관이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 까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집안 살림살이를 챙겼다고 한다. 배용순은 남편 사후에 여성에게 경제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몸소 겪고 깨달았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물론 며느리의 경제활동도 적극 도왔다고 한다. 특히 김구의 아들 김신이 김포 공항 스텝을 마련해 주었을 때 며느리가 그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은 집안 일을 챙겼다고 한다. 배용순의 아들 윤중은 윤봉길 아들이란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해야 하고 도와 주었기에 월급 한번 제대로 집에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고 하니 독리 운동가의 아내들이 짊어 져야했던 경제적 책임과 부담은 그 후대에 까지 그대로 대물림 되었다.

우리 엄마는 진짜...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컸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시집 오니까, 시집 와서 좀 살려고 하...오자마자 지...집, 뭐라 그럴까 살림을 딱 갖춰서 사는 그 집을 남편이 빚보증 잘못 서 가지고 날아가지, 그 다음 남편 뭐...월급을 갖다 제대로 딱 막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빈...빈봉투 갖다 주니까, 머...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지.

마. 배용순 생존의 방식 : 침묵 속의 투쟁

- 배용순은 시대 식구들로 부터도 온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리고 구박과 맘 고생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6.25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차갑게 돌변하는 사회적 시선들을 감내해 가면서 살다보니 자기 주장을 하거나 윤봉길 의거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내세우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과 자녀들을 지켜 나갈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 같다.
- 배용순의 생존방식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영혼의 윤봉길을 기리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일제 식민치하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 마음 아팠고, 자신이 시부모에게 못된 며느리라는 말을 들어서였는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생존방식은 침묵 속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 독립운동가들보다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삶이 더 처절하고 치열했을 법한데도 역사나 사회는 이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별 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기 일상인데, 배용순은 그런 대접을 가족들한테 조차 받으며 살았던 것 같다.
- 배용순과 그녀의 가족들은 사회나 가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용순을 보면서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혹은 타인들로 강요된 기대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침묵 속의 행동의 길을 간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도 그렇게 얘길 안 하시고, 단지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학교에 가니까...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애들 보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가장 나쁜 놈의 아들이다...이래 가지고 왕따 당해서 뭐...학교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뭐 집에 와서 얘기하면은..그냥...그니까...사람들

이 말을...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 정도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저, 저희한테도 그냥 너희가 열심히 잘 살아라, 크게 커야 된다,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 배용순의 침묵 속의 투쟁 방식은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안 좋은 언행을 말해야 할 경우가 워낙 많아서란다. 상대방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분노나 원망 같은 마음을 갖게 될까 봐 남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대답도 안 해 주셨다고 한다. 배우순의 세상에 대한 침묵 속의 투쟁 방식은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도록 지지하고 돌봐주는 것이었던 것 같다.

예전 얘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물어봐도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하시고...근데...그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어...한편으로 생각하면...우리 할머니 성격은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그걸 너무너무 싫어...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기도 싫고, 남이 나를 오해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남이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 원망하는 것만 들었다면, 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내가 세상을 미움,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더 많이 봤을 텐데, 그게 안 하,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컸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 노년에 과거 이야기 아니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정말 조용했다고 한다. 그래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말이 없어요, 말이. 그리고 조용...영화 있잖...조용한 가족. 우리 아버지도 말이 없으시고 우리 할머니도 말이 없으시고, 우리 엄마 처음에 시집 와 가지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말이 없어 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사셨고. 우리 엄마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가 한 번도 며느리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다 봐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딸도 그러기 어려운데.



〈배우순이 사랑한 조용한 가족 사진〉

바. 배용순 임종의 순간

- 배용순은 8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당시 취장암 판정을 받았고, 취장암을 판정을 받은 후 몇 개월 사시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까지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셔서 손수 화장실 일을 보셨단다. 임종의 순간에는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안가 안가를 되네이면서까지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가시면서도 이제, 우리, 애들이 막 우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가셨죠. 안 간다. 안 간다. 안 가, 안 가. 마지막 말이 안 가, 안 가. 울지...우리 울지 말라고. 그리고 가신...그래서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끝까지 무슨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아내로서 끝까지 그런 자존심과...그런 걸 지키셨구나. 정신력으로 버티셨구나.

사. 나오는 글

- 윤봉길 의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수천 수만 마디 호언장담을 하기 보다는 몸소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말보다는 행동을 우선 하셨다. 그래서 옛을까 배용순도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했다. 가급적 말을 아끼거나 하지 않는 대신 행동으로 옮겨 보이시고 본으로 보이셨다. 스스로 삶의 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모양이다.

- 연구원: (2:54:57)마지막으로 배용순 선생님, 게, 줌, 이렇게, 뭐 몸, 몸으로 행실로써, 행함으로써 많이 보여주는데, 말로써 뭔가 뚜렷하게 표현하시거나...
- 윤주경: 그런 건 없었어. 지, 지금 생각하면은 야학에서 그, 할아버,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쳤을 때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가 농민독본 중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서 그거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그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가르침이셨던 거 같은데, 할아버지의 충실한 제자가 아니었나.
- 연구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던, 던, 던진다는 것은.
- 윤주경: 누구보고 나 세상이 이렇게 변, 나라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긴 안 나가고. 그런데 네가 나가면 안 되겠니?

- 배용순의 묘소는 충의사가 내려다보이는 나지막한 야산에 자리 잡고 있다. 죽어서까지 남편 윤봉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모습이다. 충의사에 윤봉길과 배용순 가족의 사진이라도 걸렸으면 윤봉길 의사가 덜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용순 묘소〉



〈충의사〉

3. 정정화, 전쟁 뒤편의 삶⁴⁾

가. 들어가는 글

- 상해 임시정부 건물과 정정화 가족이 머물던 집 건물은 서로 같은 골목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임시정부와 정정화가 머물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정정화의 손자 김자동은 말한다.

지금 상해가면, 상해 가봤어요? 가보면 임시정부 기념관. 가봤죠?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제에, 보경리, 부상리 4호예요. 거기 상해 어떻게 집이 돼 있냐하면 골목이, 이렇게 골목이 있잖아요? 1, 3, 5, 7 이렇게 나가요. 2, 4, 6 이렇게 나가요. 예? 임시정부가 이 집에 있었어요. 이게 상해 기념관으로 돼 있거든. 근데 그 때 우리가 이 집에 있었어. 이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있었다고. 1호에 살았다고. 1호에 누가 있었냐면, 이동녕 선생하고 엄항섭 선생네 가족, 애가 둘이야. 근데 이 때, 윤봉길, 윤봉길 의사 거사하면서 빨리 피난하는데, 우리도 피난하는 게 아니지 여기 와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빨리 피해라 여기 있다가 큰일난다고. 백범 선생은, 여기 임시정부 청사에는 다른 사람 없었어. 김구 선생 혼자, 청년만 7~8명 같이 있었어. 국무위원들은 대개 이 근처에 살았어, 다. 다 이 근처에 살았다고. 저 우리는 여기.

- 중일전쟁과 윤봉길 의거 후 임시정부는 남경, 호남성, 후란성, 상사란 등으로 길고도 험한 이동을 하였다. 임시정부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저명한 인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정정화는 상해 임시정부 이후인 그 긴 이동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과 임시정부 가족들의 중심에 있었다. 임시정부 사람들은 상해 혹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접받거나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며 놀림 받고 무시당하며 살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변성명을 하면서 조선인임을 숨기고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

- 김자동: 38년 2월에 상사, 그날, 11월에 남경서 임시정부가 떠나서, 호남성, 후난성, 상사란으로 갔거든. 상사에 도착하자마자 김구 선생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가니까 너희도 이제 중국 관청 집어 치우고 이제, 여기 오면, 땀땀이 사니까 이리 와라. 중국 관청에서 그 전까지는, 이, 저, 전쟁나기 전까지는, 변성명하고 중국 사람 행세하고 살았거든. 근데 땀땀이.

4) 이 글은 2019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정정화의 아들 겸 임시정부기념사회 회장인 김자동, 정정화의 손녀 겸 주식회사 오토 회장인 김선현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나. 정정화, 상해 망명의 길

○ 정정화가 상해로 망명한 직접적인 계기는 시아버지 동농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이 상해로 망명했기 때문이다.

○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몇 개월이 흐른 뒤 아마도 10월 쯤인가 동아일보에서 시아버지 동농 김가진의 상해 망명 신문기사를 보게 된 정정화... 그녀는 마침내 상해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 김자동: 근데, 인제, 어,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하여튼 그 때,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야. 하여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망명할 적에 어머니한테는 얘기 안 했대. 할머니한테만 얘기하고 갔을 거야.

■ 김선현: 할머니 모르셨대요. 어?

■ 김선현: 할머니도 모르셨던 걸로.

■ 김자동: 할머니는 알았대.

■ 연구원: 할머니는 대충 짐작은 하셨다는 걸로. 짐작은 하신. 게, 현웃을 이렇게 만, 만들어다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정화 선생님한테 네가 현웃을 만들어라 해서. 아무 까닭도 없이 현웃을 만들어...

■ 김자동: 이제 어머님이 좌우지간 그게 좀 특별한 거예요. 그 때 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다닐 적이야. 1919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망명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가 여기서 시집살이만 하고 살게 아니다.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 그녀는 상해에 간다고 친정 집에 말하고 상해로 건너간다. 그녀는 상해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자동을 낳고 그 후에 조선으로 돌아와 아들의 돌을 세기도 했다며 지금은 90세가 넘는 아들 김자동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 김자동: 그러니깐 이제, 처음에 망명할 적에는 편히 간 거야. 게, 친정에 가서 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나, 나도 중국으로 가겠다. 여, 여기서.

■ 김자동: 난 상해 떠날 때 기억은 안 나요. 예, 어려서, 예, 31년에 떠났거든. 내가 28년생이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

■ 연구원: 그럼 거기서 정정화 어머님이랑 같이 사셨어요, 그 집에서?

■ 김자동: 물론이죠. 근데 그, 내가 낳기 전에 어, 어머님이 인제 국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인제 내가 돌 났을 적에,

다. 정정화, 독립자금 모금 활동과 경제적인 지원

- 정정화가 상해로 오기 전 국내에서는 상해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막상 상해에 도착해 보니 임시정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 상황을 지켜보던 정정화는 친정에 가서 자금을 구해오면 될 것 같아서 이를 신규식에게 말하였다. 그 결과 그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닌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독립자금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다.

상해로 오기 전 국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 대의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여러 지사들도 활동을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이름, 명예, 자존, 금지 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 나는 예관 신규식을 찾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좀 얻어와 볼까 하는데요..이렇게 하여 친정에 가서 돈을 좀 얻어 오려던 나의 사사로운 계획은 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의 지시에 따른 공적인 일로 바뀌었다. <장강 일기 중에서>

- 1차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위한 입국과 귀환에는 안동의 우강 최석순(왜경의 형사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의 내왕을 도움)과 신의주의 세창양복점의 이세창씨의 도움과 활약이 컸다.

당시 안동에는 우강 최석순이 임정의 연락 업무를 띄고 상주하고 있었다. 그는 신분 위장을 위하여 한편으로 왜경 형사로 있으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왕을 도왔다.

<장강 일기 중에서>

- 1차 독립자금 활동이 처음에는 극비밀리에 행해졌으나 돌아온 후부터는 상해 망명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정정화는 상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 2차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위한 입국은 1921년 늦은 봄에 이루어졌다. 2차 입국과 귀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임무가 끝난 후에 거점들이 발각되고 말았다.

이세창 씨는 왜경에 체포되었다. 이세창 씨가 그 때 투옥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다. <장강 일기 중에서>

- 3차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위한 입국은 1922년 6월에 이루어졌다. 임시정부 어른들은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와해돼서 내왕을 도울 길이 없다며 모두 만류하였지만 정정화가 끝까지 우겨서 결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마지막 순간의 실수로 발각되어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곧 풀려나게 되었다

다리를 거의 빠져 나왔을 쯤해서 일본경찰 두명이 슬그머니 인력거 앞을 가로막고 섰다. 끝까지 능청을 부리면서 예사롭게 넘겼어야 할 것을 어물어물 당황하는 바람에 체포되고 말았다. 종로서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간단한 조사만 하는 정도였다. 종로서에서 석방되는 길로 시덕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덕에는 뜻밖에도 상해에서 온 전보 한 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님 병환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장강일기 중에서〉

- 4차 입국은 1922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출발할 때 받은 여권이 있었으므로 비밀리에 입국할 필요가 없었다. 이 때 정정화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영어를 배우면서 아버지한테 유학을 가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아버지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유학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나는 아버님께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뜻을 얘기하였다. 아버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였으며 봄이 되면 쌀을 팔아서 5천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의 유학계획은 고스란히 깨지고 말았다. 아버님이 이듬해인 1923년 봄 음력 2월 4일에 그만 세상을 뜨신 것이다.
〈장강일기 중에서〉

- 5차 입국은 1924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임무는 띠지 않았다. 이듬해 6월까지 친정 예산에서 정정화는 상해의 긴장도니 상황을 벗어나 6개월 간 친정에서 평범한 생활을 한 후에 상해로 돌아갔다.

6개월 간의 휴식 기간 중에 나는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문학과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 책을 늘 손에 잡고 있었는데, 학교 교육의 부족을 메우느라 내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다. 〈장강일기 중에서〉

- 마지막 입국은 서른 살이 되던 여름에 있었는데, 이 때는 친정의 가세도 기울대로 기울었고, 시덕도 어려운 처지였다. 게다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왔다고 하니 알고 지냈던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모습에 견디기 힘들어서 상해로 돌아갔고, 독립 전에는 귀국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한 번은 시택에서 가까운 인사동을 지나다가 1차 입국 때 나를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이의 집을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뜸 “누구시더라” 하여 뒤도 안돌아 보고 되돌아 섰다. 상해로 돌아가면서 나는 독립이 되기 전에는 다시 귀국하지 않을 것을 마음 먹었다. <장강일기 중에서>

- 결국 상해로 돌아온 정정화, 그녀는 이제 친정과 시택, 그리고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조국 독립을 위한 여정에 몰입하였다. 그리고 그 힘찬 출발과 험난한 여정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 동농 김가진의 뜻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동농 김가진은 1922년 상해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정정화는 시아버지 동농 김가진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독립자금 모금으로 국내에 잠입해 있는 동안 시아버지 사망 급보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 그 당시 김가진 집안은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남의 집 결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정정화는 이리 저리 수소문하여 상가를 차리고 손님을 맞으니 많은 사람들이 들렀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부의금도 건넸다. 정정화는 일부는 시어머니께 그리고 꽤 많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활용코자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상해로 돌아갔다.
- 상해에서는 동농 김가진이 죽자 장례를 소홀하게 치를 수 없다며 제법 성대하게 치른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빚을 내어 치른 것이었다. 한양에서 받아 가지고 온 부의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기도 전에 장례식 빚을 청산하는데 쓰이고 말았단다.



○ 윤봉길 의거 후 상해를 떠나 망명 생활을 할 때의 기억을 김자동은 소년 시절이었던 자신의 느낌에 대하여 오랜 만에 조선의 아이들과 조선의 말을 마음껏 사용하고 중국인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어른 들과는 달리 배 위에서의 숨바꼭질 등이 재미있었다고 회상한다.

- 김자동: 우리 남경에서 같이 피난 왔어.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리 모여서 같이 가.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중, 중경까지 같이 갔지. 뭐 그냥 한꺼번에 간 게 아니라 이, 이렇 둘, 두세 번 나눠 가더라도 하여튼 모여, 모여서 갔지.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런 우리나라 사람 모임 가면은 재미가 있었어. 보면은 피난 같 적에, 그게, 예,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거야.
- 연구원: 근데 애들은 좋았어요?
- 김자동: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배 위에서 한 40여일을 지낸 일이 있어. 그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나는 그 때 기억하면 재미만 있어.
- 연구원: 재미, 뭐가 재밌었어요?
- 김자동: 아, 저 뛰어 노니깐. 배, 배가 커요. 배 위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 연구원: 같이, 같이 동포들끼리? 노니깐 좋았어요? 같이 동포들끼리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노니까.
- 김자동: 아, 배 위에서도 숨바꼭질도 하고, 재밌어요.

1) 조선 망명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다양한 욕설에 대하여

○ 중국인들은 조선망명자들에 대하여 왕궐루는 말을 하곤 했는데, “왕궐루”란 나라도 없는 놈, 망국노란 뜻이다. 김자동은 이런 “왕궐루”란 말을 들으면 엄청 화가 나곤 했는데, 이 일로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다음에 하는 욕설은 “까올리”라는 말인데 “까올리”는 조선을 깔볼 때 조선이란 말 대신 사용하는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까올리빵스” 라는 욕이 있는데, 빵스는 놈이란 뜻이란다. “까올리빵스” 는 당시 조선인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할 때 나쁜 놈이라는 욕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으레 만나면 서로 욕하는 게, 하여튼 욕을 중국 사람들은, 주먹 싸움은 별로 안 하고, 욕은, 욕은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딱 욕하면 내가 다 중국 사람 하는 욕 같이 하면 괜찮은데, 왕궐루 소리가 나오면 못 참아.

- 연구원: 왕?
- 김자동: 왕궐루.
- 김선현: 그러니까는 망국노.

- 김자동: 왜놈을 미워하니까. 우리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망명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호감을 선생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인제, 간혹은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까올리는.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발음 때문에도 그럴 거야. 까올리라고 하면 딱 깔봐요. 깔볼 적에는 조선이란 말 안 쓰고, 까올리라는 말을 써.
- 연구원: 까올리가 무슨.
- 김선현: 고려.
- 김자동: 까올리빵즈하면 아주 조선. 이 중국에서 특히 왜놈 치하에서 조선 사람들이 대개 그 일본 밑에서 왜놈 앞잡이 하는 놈이 많거든. 게 돌아서서 까올리빵즈. 저 나쁜 놈. 그렇게 욕하지.

2) 조선 망명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 그 당시 엄항섭이라는 임시정부 요원은 프랑스와 중국어에 능통해서 프랑스 공무국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조선인 다수가 취직한 직업은 검표원인데 영어로 인스펙터라고 불렀다고 한다. 인스펙터는 차표를 검사하는 요원인데, 가장 낮은 직의 직무이지만 이름이 인스펙터라고 제법 있어 보였고 월급도 괜찮았다고 말하면서, 김자동의 아버지 정정화의 남편도 한 때 인스펙터를 했다고 김자동은 회상했다.

- 김자동: 이 회사는 영국놈, 프랑스놈들의 회사다 말이야. 매표는 중국 사람이야. 또 팔아먹고 부정을 하든지 마음대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이 눈치를 봐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밑에다 놔다가, 좀 촌스러운 놈한테 그걸 또 팔아먹어요. 그, 그거 파는 거 후에도 내가 봤거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검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검표원을 인제 예, 중국말로 하면 그것이 아주 좀, 핫바리 직업이고 보인단 말이야. 사실 그게 뭐 신통치 않은 직업인데 근데 그 영어 타이틀이 인스펙터예요. 한국 사람들 내가 너 뭐하고 있냐? 하면 아, 나 인스펙터야. 그러면 무슨.
- 연구원: 대단한 직업인 거...
- 김자동: 대단한 거 같이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맨 인스펙터데, 우리 아버지도 인스펙터라고 그랬다고. 그 월급이 나쁘지가 않았대.

3) 정정화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 정정화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자 학교 교과서를 미리 배운 다음에 아들 자동에게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동은 학교에서 늘 1등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많은 칭찬

과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교과서를 먼저 배워서 가르쳐 주었는데,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부터는 영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학에서는 대수 등이 나와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 김자동: 담임선생이 그 때 나 굉장히 예뻐했어. 내가 전교에서 제일 작은데, 그리고도 집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거 없이 그냥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나는 집에서 배우고 갔으니까.
- 연구원: 집에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 김자동: 제일 조그만한 놈이 일등하고 그랬다고.
- 김선현: 누구한테.
- 연구원: 집에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 김자동: 어머니.

4) 정정화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 정정화는 유세관으로 부터 영어를 배웠고, 한학과 역사는 성재 이시영 선생으로 배웠다. 서당에 간 적이 없지만 어머니는 논어를 읽는 등 한문 실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정정화는 한의학은 성재 이시영 으로부터 배워서 약방문을 쓰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김자동은 이시영이 진맥을 보고, 약방문을 처방해 주는 등 한의학 수준이 상당했다고 기억한다.

- 김자동: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를 가르쳐 줬어.
- 연구원: 누가?
- 김자동: 우리 어머니가.
- 연구원: 선생님을? 어머니는 영어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 김자동: 아, 저,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해서서.
- 연구원2: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영, 영어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 김자동: 상해에 있을 적에 재미교포가 한 분 있어. 유세관이라고. 백범 선생이 8·15 후 귀국하자마자 그 사람을 찾았대. 찾았더니 8·15 직전에 돌아가셨대.

<중략>

- 김자동: 어머니는 논어 같은 것도 읽으셔. 참 대단한 거지. 서당도 제대로 못 다녀 봤는데. 근데 어머니가 한문 배우는데 크게 도움을 준 분이 성재 선생이야, 이시영 선생.

- 연구원: 아, 그럼 한문도 배우고 약 처방도 배우고.
- 김자동: 방약합편이 있어.
- 김선현: 방약합편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가 쓰신 글씨도 있고 이렇게 공부들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그 방약합편 공부하신 거 있어요.
- 김자동: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도 간단한 처방을 했어. 한약.

5) 임시정부의 학교 교육교육과 유치원 교육에 대하여

○ 임시정부에서는 중일 전쟁 후 호남성에서 조선인 학생 7~8명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운영했다고 한다. 교장은 이달이었고, 음악 선생은 김철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아주 재미있고 인상 깊게 지도해 주었다고 했으며, 거의 학생 수 만큼의 교사들을 배치해서 그 때의 교육이 매우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다고 김자동은 회고한다.

- 김자동: 장사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 중일전쟁이 나고 나서 그 이듬해 2월달에 이 호남 장사에 가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한 육, 우리 또래 애들이 한 6~7명, 7~8명이 있어요. 근데 그 7~8명을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학교를 만들었던 거야.
- 연구원: 그럼 그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그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그.
- 김자동: 아 임시정부지.
- 연구원: 임시정부에서 했어, 아니면 그 남편을 따라온 아내들이 주로.
- 김자동: 그런데 교, 그래도 교장이 있었어요. 교장 한 분 있고.
- 연구원2: 누, 누구셨어요, 교장이?
- 김선현: 이 달.
- 김자동: 이달 선생. 그 딸은 여기도 가끔 와. 이달 선생 딸이.
- 김선현: 또 교장 말고, 또 누가 있어요?
- 김자동: 김철이라는 음악 선생이 있었어.
- 연구원: 김철. 남자였겠네요?
- 김자동: 김철 선생. 그, 그, 그분은 아주 노래를 잘 했는데, 내가 그, 무슨, 그 연못가에 새로 핀 뭐 어찌고 아니 또 푸른 하늘 은하수 그리고 무슨 거기 따라서 울동 같은 거 하고 하는 걸 다 거기서 배웠거든.

○ 정정화는 자녀의 교육과 자신의 배움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가족들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육에도 힘썼다고 한다. 1935년에 임정의 한국국민당에 가입, 공식적인 단체 활동에 투신하였다. 또한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조직하여 간사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1943년 2월에 대한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재건대회에서 훈련부장에 선출되고는 국내외 한인 여성의 총 단결을 역설하였다.

- 임시정부 어른들은 무슨 큰 일이나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정정화를 먼저 찾아오곤 하였다.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때에 김구가 찾아와서 점심 식사와 술 한병과 신문을 사오라고 일렀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굼하였지만 일러준 대로 하였는데, 후에 알고 보니 윤봉길 의거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이다. 그런 중요한 자리가 정정화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간단하게 점심을 거의 먹을 썬해서 이동녕 선생과 조완구 선생이 오고 좀 늦게 백범이 도착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식사가 끝난 후 백범이 난데없이 나에게 술 한병과 신문을 사오라고 일렀다. 평소 술을 입에 대는 일이 없는 분이 더욱이 낮에 술을 찾는 게 의아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나온 호외에서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인 청년 윤봉길 이라고 고쳐 보도되었다.



〈1941. 10. 10. 삼일유치원 추계 개학기념〉

6) 정정화와 임시정부 여성들 간의 교류

- 정정화, 그녀가 임시정부 시절 존경했던 분들은 남성 독립운동가들 이외에도 여성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분들은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⁵⁾과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⁶⁾였다고 한다.
- 곽낙원에 대해서는 큰 아들을 낳을 만한 큰 어머니였다고 자주 언급하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일화는 “30센치 내려가면 다 똥이야”라며 너무 깔끔떨지 말라는 유머도 하셨고, 임시정부가 이정도라도 운영되는 것은 다 “윤의사 피 값이야”라는 말도 자주 하셨다고 한다.
 - 김선현: 그러니까 뭘 이렇게 깔끔을 떠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거 막 에이, 더러워,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잘 하셨던 얘기 중의 하나가 곽낙원 선생님 얘기를 하시는데요. 곽낙원 선생님이 어, 그냥 30센티만 내려가면 다 똥이라고 그러셨다고.
 - 연구원: 그게 30센치다.
 - 김선현: 네. 입에서 30센티 내려가면 다 똥이다, 게.
 - 연구원: 똥 얘기 말고. 똥 얘기는 인제 굉장히 실화가 될 거 같아요.
 - 김선현: 거, 뭐, 많이 알려진 얘긴데, 뭐, 윤의사 피값이다.
 - 김선현: 통이 크시고, 그니까, 뭐, 게, 할, 할머니가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 김선현: 네. 안창호 선생님이나 조마리아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존경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은 곽낙원 선생님하고 이동녕 선생님. 예. 두 분을 제일 존경하셨어요. 큰 아들을 낳을 만한 큰 어머니였다.

5) 곽낙원은 여성 독립운동가이며 김구의 어머니이다.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14세에 시집을 가 17세에 김구를 낳았다. 김구가 독립운동을 하다 여러 번 투옥되었을 때 매일 사식을 넣으며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김구를 따라갔다가 1925년 귀국했다. 이후에도 생활비를 절약하여 아들에게 송금하며 계속 독립운동을 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가 날로 심해지자 1934년 3월 19일 손자들을 데리고 상해로 탈출했다. 이후 큰손자를 군관학교에 입교시키는 한편,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에서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의 병영 생활을 돌보는 등 아들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1940년 4월 26일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중국 충칭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출처 다음백과>

6) 본관은 배천[白川]이며, 조마리아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조성녀(趙姓女)는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어머니로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고, 임시정부의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上海在留同胞政府經濟後援會)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상하이에서 순국한 조성녀의 장례는 프랑스 조계에 있는 천주교당에서 교민장으로 치러졌고, 안남[越南]인 묘지에 안장됐으나, 지금은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출처 다음백과>

○ 그리고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해 온 시기가 시아버지 동농이 상해로 망명해 온 시기와 비슷해서 서로 간 망명 동기처럼 가깝게 지냈으며, 특히 김구가 동농 김가진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다고 했다. 그래서 김구는 동농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에게 자신을 형이라 부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김의한의 아들 김자동은 자연스럽게 김구를 할아버지가 아닌 형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 김선현: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이 1919년 어, 한 증후반 오셨으니까, 증조부님이랑 그, 상해에 가신 시기가 비슷하세요. 예, 그래서 증조부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셨대요. 그래서 그 윤경빈 선생이 그 증조부님 장례식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김구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의 사진이다 이렇게 얘길 하셨대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이 증조부님을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할아버지랑은 나이 차이가 있으시지만, 의형제를 하신 거예요.

○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이시형과 이동녕 두분 이었고 나머지 모든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은 모두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1940년 6월 17일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



〈김구의 장례식장에서〉

마. 나가는 글

- 정정화의 삶에 대한 마무리는 아무래도 정정화의 아들, 영원한 임시정부의 소년 김자동이 장강 일기 부록으로 쓴 “어머니에 대하여”에 나온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중국 망명 30년의 세월은 결코 평탄치 않은 역경의 세월이었긴 하지만 적어도 이상이 세워져 있었고, 목표가 뚜렷했으며 희망에 차있던 30년 이었다.

그리고 부산에 첫발을 내디면서 출발한 독립조국에서의 40년 세월 . . . 어머니는 늘 말씀하신다. 원칙이 없다고. 어쩌면 어머니가 겪으신 조국의 40년은 침울한 것이었지도 모른다.

6.25때 어머니가 투옥된 불행한 사건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상처를 입혔다.

어머니는 그 후부터 중국시절의 당당하고 패기 넘치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책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쪽 눈을 실명한 채로 여전히 돋보기에 확대경까지 걸치고 책 갈피를 넘기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감당하지 못할 많은 것을 내게 말해준다.

어머니의 항일 투쟁 기록은 고초와 간난으로 점철된 파란 만장한 한편의 대서사시다.

4. 유관순, 자유를 향한 불꽃기)

가. 들어가는 글

- 유관순 열사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유관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유관순이라는 한 명의 열사를 비인간화하여 독립운동의 아이콘화 하기 위해 그의 삶을 윤색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 유관순을 당시의 여성상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로서 묘사하는 과정에서 3.1 만세운동의 많은 실질적인 측면들이 가려지거나 생략된다.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존재하였던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환경의 변화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17살의 소녀라는 정체성을 유관순에게서 분리해낼 것이 아니라, 당시 유관순과 같은 환경에 처해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 지지자들에게 유관순의 용기와 독립을 향한 열정, 지식욕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부과해야지만 이 보다 넓은 시각으로 3.1 만세운동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어지는 장에서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나 당연히 바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그녀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회고해 보고자 한다.

나. 유관순의 어린 시절

- 김정애는 시아버지 유관순 오빠로부터 들은 이야기 라며 유관순이 6살 때 어머니가 힘들게 보리방아를 찧을 때 6살 짜리 유관순이 덤벼들어 함께 보리방아를 찧었다고 유관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주었다.

7) 이 글은 2019년 6월 4일 유관순 기념사업회에서 류정우 유관순 기념사업회장, 김정애 유관순 오빠 유우석의 머느리 곁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장이었던 김정애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 김정애: 우리 시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보리방아를 짚는 것을 여섯 살짜리가 덤벼서 자기도 짚더라는 거예요.

- 유관순이 보통과 4학년에 올라가지 직전에 사촌 오빠 경석과 울케 노마리아 사이에서 첫 조카가 태어나자 조카에게 줄 모자를 코바늘로 떠서 선물했다고 한다.



〈유관순이 조카 제경에게 주기 위해 실로 뜬 모자〉

- 유관순이 이화학당에 다닐 때 과제로 제출한 석란도를 보면 그 실력이나 예술적 감성이 느껴진다.



〈유관순이 과제로 제출한 석란도(1918)〉

○ 지금은 천안이 교육 도시처럼 성장했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충청권에는 공주 외에는 이렇다할 학교가 없었으며, 더구나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더더욱이 찾아 보기 힘들었는데, 충청권에는 유일하게 공주 영명학교가 있었고, 천안에 살던 유관순이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주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회장: 천안은, 그 당시 아무 것도 없어, 학교도 없어. 아무 것도 없는데, 공주는 그래도 학교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서 1900년도니까 5년도에 그 일본놈 들어와 사니까, 10년도에도 학교가 어딴지. 근데 지금 보면, 국민학교 이런 거 없어. 우리 유관순 열사도 그 때 당시 뭐 하나 없었으니까 이화학당 그래서 이화학당 보통부, 고등부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거지. 무슨 소학교 뭐 이런 거 없어. 뭐 이제 그 시대가 넘어가야 돼.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이런 그걸 그냥 망각해 버리고, 안 기억하려고 뭐 참 이상한 얘기를 해.

○ 유관순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환경은 교회였을 것이다. 천안 병천의 유관순 생가와 매봉교회를 답사한 바 있는데 교회와 생가가 바로 지척에 붙어 있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신의 안 마당과 집처럼 지냈다고 하니 아마도 거기서 사애리시 선교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고 유관순을 영명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추정해 본다.

○ 사애리시는 다음 수순으로 영명학교에 다니던 유관순을 자신의 양녀로 입적하여 유관순을 이화학당 교비 장학금을 받게 하여 이화학당에 편입 시킨다. 유관순의 영명함과 유관순 가족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관순은 주말이면 가끔씩 천안 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주일 예배시간에 맞추어 돌아와선 사애리시 선교와 함께 예배를 보곤 하였다고 한다.

■ 회 장: 교육열은 대단했다고 그렇게. 그 살림도 형편없는데. 근데 그 영명학교라는 것이 지금 인제, 천안에는 학교도 없고, 유일하게 보면 공주, 거기밖에 그거, 없어. 학교 보내려야. 천안에는 없어.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거 유학 보낸 거 같다고 하는데.

■ 김정애: 결국은 집을 떠나 보냈잖아요. 공주에서 좀 있었어요. 사애리시가 돌봤죠. 사애리시가 그 저, 그 유관순 열사를 자기 공주로 데리고 올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교육열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 유관순의 아버지는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이후의 가정의 재정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 연구원: 유관순 집안이 굉장히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다고, 일반적으로 상상을 하고 추정을

하거든요. 게, 그건 어때요, 그렇게 생.

- 김정애: 그거는 인제,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으로 살았었는데 우리 시할아버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그 때에 학교, 흥호학교라는 학교를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동네 유지들하고 같이 흥호학교.
- 연구원2: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어디?
- 김정애: 그게, 천안, 천안에 있었겠죠. 네. 흥호학교를 만들었어요.
- 연구원: 유중권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 김정애: 유중권 할아버지. 네.
- 연구원: 네, 거기, 거기서. 학교를 만드셔서?
- 김정애: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장기화 될수록 출자한 사람들이 계속계속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할아버님께서 인제 뭘 담보로 지출하고, 아마 집을 담보로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돈을 썼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렸나 봐요. 고리대금업자 일본사람이 집에 와 가지고 돈 내 놓으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여름에 옷을, 별거벗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우리 시할머니가 설거지 하던 그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좀 쫓아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로부터 기울기 시작했죠. 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꾸 이사를 다녔나 봐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사실이죠. 처음에는 보통으로 살았는데.

○ 또한 유관순이 살던 병천 아우내 장터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각종 신문물이나 물건 그리고 일본군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유관순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는 세상을 당연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다 큰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다.

- 회장: 거기가 거기야. 거건 아우내. 바로 옆에 거긴데. 병천이라는 데가 근데 그것이 지금, 유관순이 태생이 지금까지 해보면 8번이 바뀌어졌어, 행정명이. 행정명이. 내가 왜 그러냐하면 그 비문을 조금 쓰는데 처음에는 출생지를 쓰는데 출생 당시, 그 당시 거를 쓰는데 청원군 요렇게 나오다



〈유관순이 사애리시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교회〉

가 뭐 천안군 나오다가 천원시, 천안시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한 8번이 바뀌었어요, 그거. 지형이. 지, 지금은 뭐냐하면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 유관순생가길 12, 뭐 12인가 요것이 인제 현재 건데. 그런데 그 당시 거기가 물류의 집산지가 돼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이 딱 데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못 볼 것도 더 보고 새로운 것도 보고 그런데다가 그 때 선교사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것이 있는데.

다. 유관순과 3.1 만세 운동

- 3.1 만세 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서울에서 주도 되었던 3.1독립선언의 정황과 독립선언서를 이화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자 살던 지역으로 내려가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
- 각 지역사회에서의 3.1 독립운동은 유럽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 유지, 지역사회의 교회, 그리고 지역의 청년 집단, 여학생들 4개 집단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 김정애: 이소제 여사에 대해서는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유관순 열사하고. 근데 유관순 열사가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 만세 운동을 준비할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그 고을을, 몇 개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 출발을 그 짚신 신고 출발해 가지고 밤에 새벽에 들어온 거, 새벽에. 그럼 그 때에 어머니가 밤잠을 안 자고 딸이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딸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애썼는가 하면서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거죠. 그 산, 산을 넘어 고개를 넘어, 그 때에는 여우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대요. 근데 그 때에 만나면은 눈싸움을 한대요. 유관순 열사하고 호랑이하고 눈싸움을 해. 그 눈싸움을 하면은 인제 호랑이가 슬쩍 물러간대요.

- 그러한 신뢰구축은 근 보름 동안 지역 각처를 밤낮으로 다니며 3.1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약속하는 활동을 한 유관순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이러한 역할을 유예도와 함께 하기로 되었는데, 첫날만 유예도가 참여하고 그 다음 부터는 병이 나서 유관순 혼자서 했다고 한다.

- 연구원: 그 유관순 그 혼자 왔다갔다 하신 거예요?
 - 김정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예도 선생님하고.
 - 연구원: 어디 보면 유예도하고 같이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 김정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첫날 하고 유예도 선생은 병이 들었어. 몸이 약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혼자 다니셨어. 근데 왜 그런 여학생을 선택했느냐, 그 때에 남자들은 다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 때에 김종성이라는 사람인가, 그 분이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저 체포됐잖아요. 체포돼서 그, 그 일대는 청년들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여학생은 감시가 덜 하니까, 여학생을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 김정애: 그니까 그, 인제, 그, 마지막에 인제 그, 미,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인제 부녀들이 모여 가지고 그 3·1운동을 계획하고 했을 때, 말로 참여는 안 하지만 다 듣잖아요. 그 때 그걸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인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계란 몇 개를 다 삶은 거예요. 다 삶아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니까 먹어라 그래 가지고 그,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옷이, 그때에는 옷이 많지 않죠. 유관순 열사는 옷을 세 벌을 껴 입었어요. 세 벌을 껴 입었는데, 맨 속에 흰 치마 흰 저고리 입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노란 저고리랑 남 치마 입고, 그 다음에는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입었어요. 세 겹을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딸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그니까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얘깁니다. 세 벌을 껴 입었다는 얘기. 인제. (중략) 근데 이제 만세 운동을. 1919년 4월 1일날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두 부부가 죽었다 이 말이야.

○ 전승되는 바들에 의하면 공주법원에서 유관순에 내린 판결은 7년형, 6년형, 5년형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5년 형의 경우를 본다고 할 때 그 당시 서울 독립만세 운동의 주동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3년형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년 형은 매우 심각한 주범에게나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었다. 당시 같은 형무소에 있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 장: 공주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그 때, 판결이 7년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7년형을 받았는데, 요즘은 인제 어디 보면은 5년이다. 그런데 왜 7년형을 받았냐 그러면은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박인덕이라고 어, 이화학당 선생한테 그리고 거기서 7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지금 공주법원에서 그 판결문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고개. 그래서 거기는 5년이라는데 5년이 아니라 7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리고.
- 김정애: 판결문이 유실됐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인제 그 3·1여성동지회에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같은 감옥에 있었다. 공주, 공주 감옥에 유관순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는 유관순 열사가 7년 받았다고 기억한다, 또 어떤 사람은 6년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진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서, 복심법원에 항소를 하라고 권했대요.



〈유관순 수형 기록표〉

○ 더구나 유관순에 대한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서 만일 유관순이 잘못을 시인하고 일본에 협조해 달라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유관순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 김정애: 사실 저기 유관순 열사는 음력 3월 1일에 저 천안 아우내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그 날, 그 날 유우석 선생은 공주에서 그 날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탄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세 운동을 어, 전개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우리 시아버님은 모르셨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그 공주 법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매가 스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그 유관순 열사가 저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공주법원에서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당한 것이 두 번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는 천안 헌병대에서 당한 거야. 네가 주모자가 아니다. 헌병들은. 어린 것이, 주모자를 대라 그래 가지고, 인두를 가지고 그냥 허벅지를 지져버린 거야. 말 안 한다고.

마. 유관순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유관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풍문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그 가족, 동생 유인석과 그 가족, 동생 유관석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우석 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 여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1)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

- 유관순의 아버지는 유중권이고 어머니는 이소제이다.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는 천안 병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 어머니 이소제는 후덕하고 성품이 좋으시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한다. 유관순이 3.1운동 협력을 구하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니고 돌아올 때 밤 늦도록 집 앞에서 딸 유관순을 기다렸다. 3.1운동 전날 밤 가족들을 위해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계란을 한 바구니 삶아서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3.1만세운동에 나서는 유관순을 위해 흰치마·흰저고리·노랑저고리·남치마·흰저고리·검은치마 세벌의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한다.
- 일본군은 삼일 만세운동으로 죽임을 당한 시신들을 굴비엮듯이 한 장소에 묻었는데, 유제한의 아버지 유봉석이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시신은 별도로 이장을 했다. 그리고 유관순의 오빠 유인석의 아들 유제충의 아내, 유인석·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에 의하면 두 분의 봉분을 다시 만들 때 유중권의 전부인, 그리고 이소제, 유중권을 합장하였다고 한다. 합장 할 당시 이소제가 은비녀를 끼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은비녀가 나와서 유중권, 이소제의 무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2)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그 가족

-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유관순이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공주 영명학교에 재학중이었는데 공주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ана키스트로서 운동과 독립운동을 병행하였으며, 독립이후에도 ана키스트 운동을 지속했으며, 이와 관련된 독립노동당이라는 정당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모드 정권에서 감시와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는 동생들을 돌봐준 조화벽과 결혼하였으며, 생계는 조화벽이 꾸려 나갔다.

- 오빠 유우석의 아내 조화벽은 개성과 양양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공주영명 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유관순의 두 동생 유인석과 유관석을 돌보았으며,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결혼하여 평생을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동생들 유인석과 유관석을 돌보고 결혼까지 시켰으며, 그 외에도 유관련 가족 관련 불상사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가족 뒤바라지를 하는 등 유관순 가의 종부로서 수호천사, 지킴이 역할을 하였다.
- 오빠 유우석의 아들 유제충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나키스트 운동과 이와 관련된 정당 활동을 하였으며, 김정애 여사와 결혼하였는데, 김정애 여사는 유우석 조화벽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유제충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유관순 집안 종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오빠 유우석의 아들 유제덕과 유제인은 행방불명 되었으며, 그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없어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일설에 의하면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된 바나 증거가 있지는 않음

3)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과 그 가족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은 유인석의 오빠 유우석, 유우석의 아들 유제충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의 아내는 자동차의 표를 파는 등 생업 활동을 한 바 있으나 일찍 죽어서 유인석은 재혼을 하였다. 유우석 조화벽의 며느리, 유제충의 아내 김정애가 유예도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였다.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의 아들 유제의의 아내 김정숙은 지금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 학교 교통정리와 독거노인 수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의 큰 딸 유형희는 뉴욕주에서 목사의 아내로 살고 있는데, 목사 남편의 수입이 변변치 않아 맘 고생을 많이 했으며,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린 바 있다.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의 작은 딸 유경옥은 부부가 공무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으나 병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병수발하면서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다.
- 유관순의 동생 유인석의 작은 아들 유제의의 아내 이정자는 이촌동 아파트에서 사는데 집을 주택연금에 들어서 그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4) 유관순의 동생 유관석과 그 가족

- 유관순의 동생 유관석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의 아내 최예대는 재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아들은 데려올 수 없다고 하여 딸만 데리고 재혼을 하였다.
- 유관석의 아들 유장부는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아내 조화벽이 거두어서 키워서 장가 보냈다. 유장부는 현재 독립유공자복지회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나가는 글

- 유관순은 3·1 만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나라와 충남을 대표하고, 3·1 운동 당시 참여했던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대표하고, 사회적 지위나 명망있는 유명인들이 아닌 이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다중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세운동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오빠 유우석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유관순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유관순은 이제 독립운동과 3·1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
- 이제 우리의 지평도 유관순 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많은 유관순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념하여 그 정신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유관순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꺼질 수 없는 꺼져서는 안 될 영원한 횃불이 되었다.

5. 조화벽, 끝나지 않은 운동⁸⁾

가. 들어가는 글

- 1919년 3월 1일, 각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도한 3.1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순간들이었는지, 대한민국의 독립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한 선열들의 헌신과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조화벽, 유우석, 유관순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참여하고 주도했던 3.1독립 만세 운동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공주에서, 유관순은 천안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시간대에 3.1독립만세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우연이라 하기 보다는 조화벽에게는 운명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 조화벽 그녀는 유관순이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개성 호수돈 학교 학생 비밀결사대로서 개성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개성 호수돈 학교가 휴교를 하자 독립선언서를 버선에 숨겨서 고향 양양으로 가져가서 양양의 3.1만세 운동을 촉발하고 주도하였다.
-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진 한 소녀가 개성 호수돈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같은 해에 첫 교사 부임지가 결정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충남 공주 영명학교 였다.
- 조화벽이 충남 공주 영명학교로 부임하자, 거처가 필요했고, 그 당시 교감이었던 황인식 교감 댁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8) 이 글은 2019년 6월 4일 유관순 기념사업회에서 류정우 기념사업회장, 조화벽의 며느리자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 회장이었던 김정애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나. 조화벽, 기독교인으로서 교사가 되다

○ 조화벽의 아버지는 조영순, 어머니는 전미희이고, 조화벽은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조영순은 양양에서 교회 장로 겸 목회 일(본처전도사, local preacher)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도부인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 부모 모두 신앙심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조화벽은 자연스럽게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를 세워서 운영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 것으로 여겨진다.

■ 김정애: 우리 시어머님의 어, 아버님이 조용순 선생인데, 그 분은 장로이면서 목사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초창기엔 있었대요.

○ 조화벽의 어머니 전미희는 전도부인이었다. 전도부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전도사나 목사는 아닐지라도 신도로서 전도사에 준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유별하여 남성 전도사나 목사들이 여성에게 접근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부인들이 여성에 대한 전도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화벽은 신앙심이 투철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것이다.

■ 연구원: 또 그 그 뭐야, 조화벽 어머님은 또 뭐 전도부인.

■ 김정애: 전도사, 전도사, 전미호.

■ 연구원: 전도부인, 전도사 그런 말도 있던데.

■ 김정애: 어머니가 전도부인이었어요, 여기 전도부인으로 나오잖아요? 아, 여기 나오네요. 우리, 그니까 예, 시어머님의 아버님이 본처전도사. 본처전도사예요. 그, 그니까 장로를 하면서 전도사 노릇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명칭이 있었다는 얘기. 여기에 그게 나오네요.

○ 조화벽은 개성 루씨 여학교를 다니다가 호수돈 여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첫 교사로서의 부임지가 바로 공주 영명학교였다. 조화벽은 그곳에서 한문, 수예, 수학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 김정애: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에 살다시피 했잖아, 유관순 열사하고 같아요. 유관순 열사도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보고, 그럼요, 거기 아주 교회 마당에서 놀았잖아요.

■ 김정애: 네. 뭘 가르치셨나? 근데 가르친 것이 한문을 가르친 거야. 한문. 그리고 저 수예, 수예도 하고 수학도 좀 하셨다고 그러세요.

다. 조화벽, 그녀의 독립운동

○ 조화벽이 다니던 호수돈 여학교가 개성에 있다. 개성에서의 3.1 독립만세 운동은 조화벽이 다니던 호수돈 여학교의 여학생 만세시위로 시작 되었고, 조화벽은 그 당시 졸업반으로 졸업반 17명으로 구성된 비밀결사대에 가입하였고, 개성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 조화벽이 다니던 호수돈 여학교가 개성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자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 졌고, 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화학당의 경우처럼 일부는 독립선언서를 챙겨서 갔는데, 조화벽도 역시 그랬다. 그러나 일제의 심문 검사가 철저하였으므로 조화벽은 버선 안의 솜틀에 독립선언서를 넣어서 자신이 살던 양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교회 등사 업무를 보던 김필선에게 전달하여 양양의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 김정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화벽 지사는 개성 호수돈에서 만세 부르셨고, 이제 거기에 비밀결사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 때 옛 친구로서는 김정숙 씨가 있었고, 어, 인제 그 분하고 같이 인제 트렁크에다, 그 때 만세운동 부를 때에 독립선언서를 하나 버선 솜 두는 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꺾맷대요. 그래 가지고 트렁크 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발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느냐면 교회 청년, 교회 청년, 이름이 누구더라? 예, 그 김필선? 예, 그 분한테 전달했고 그 분이 다시,

○ 개성 3.1 독립운동과 양양 독립만세를 주도했던 조화벽은 일제의 수사가 심해지자 양부누에를 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여 거기서 지내다가 수사가 잠잠해지자 호수돈 학교에 복학해서 남은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 운명의 장소, 공주 영명학교로 발령이 났다.

○ 조화벽이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거의 같은 시기에 천안에 있는 유관순의 두 동생은 천안에서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우석이 있는 영명학교로 오게 되는게 어떻게 해서 영명학교 까지 오게 됐는지는 드러난게 없다. 하지만 유우석을 찾아왔을 때 유우석은 공주 3.1 운동



〈남편 유우석〉

의 주동자로서 감옥에 있었다. 아이들은 그 당시 황인석 교감 덕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화벽 역시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황인석 교감덕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고, 유관순과 유우석의 동생들을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유우석의 옥바라지까지 하게 되었다.

- 연구원: 제가 인제 또 보니까 조화벽 선생님이 유인석하고 유관석을 그 공주에서 계, 참 보기 안타까워서 인제 키우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유인석하고 유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조화벽 선생님이랑 같이 살 때 얘기하고 그 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 회장: 그것은 거 그러고, 유인석이하고 관석이가 어떻게 해서 공주까지 갔는지 그것은 모르나, 어,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집도 일본 헌병들이 불 질러 버렸어. 그래 가지고 애들이, 그치만 갈 데는 있어. 왜? 할아버지가 그 때 살아 계셨어.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
- 김정애: 네, 3개월도 안 있었어요.
- 회장: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집도 불 질러 버리고, 할아버지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애네들이 거지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공주로 갔는지 그것은 기록에도 없고 하고 몰라. 그런데 공주로 가 가지고 공주에서 조화벽 선생이 그 애들을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얘기가. 그게 인제 인연이 돼서 유우석 씨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유관순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재판 과정이고 뭐고.

라. 조화벽, 교사로서의 활동

○ 조화벽이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처음 부임한 학교가 공주의 영명학교다. 바로 거기서 유관순의 동생 인석과 관석을 만났고, 연계적으로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을 만난다.

- 회장: 조화벽 씨하고 유우석 씨하고는 영명학교에 그 때 와서 저 조화벽 씨가 선생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919년에 이제 3·1 그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가 있어 가지고, 그 해에 인제 영명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 거기서, 난 그러는 잘, 그 때 인석이하고 칠석이하고를 그, 그거를 조화벽 씨가 돌봐줬다고. 그래서 조화벽 씨가 거기서 돌봐주고 부임해 있다가, 내가 알기로는 조화벽 씨가 29이고 유우석 씨가 26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 연구원: 글에는 거기 가서 그 유관순 동생들을 만나고 인제 그런 걸로 나와 있, 나오는데. 혹시 그 전에 거기에 개네들이 거기 있을 거라는 소식을 계, 그, 혹시라도 듣고. 간 건지.
- 김정애: 아,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거기 도착해 황인석 교장, 그 집에 하숙을 하니까.

○ 조화벽은 유우석의 옥바라지를 했고, 그리고 유우석의 배재학당에서의 학업을 지원했으며, 공주에서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갈 때에도 늘 인석과 관석을 동행하며 보살폈다. 유우석은 처음에는 조화벽을 누이처럼 여겼다. 그러다가 점점 연심이 자라고 열정적인 사랑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유우석은 조화벽에게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매달렸고, 조화벽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화벽 29살, 유우석 26살에 둘은 결혼을 한다.

- 김정애: 네, 네. 그냥 학교라고 해도 소학교였을 거예요. 네. 거기에 갔는데 인제 그 집을 얻은 게 하숙집을 얻은 것이, 공주영명학교의 황인식 교감의 집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남자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더니, 아, 그게 인제 유우석의 동생들이고 또 유관순의 그 동생들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불쌍해서 그 때부터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 나중에 우리 시어머님은 어, 그, 형을 받고 출옥을 했잖아요. 출옥을 해 가지고 보니까 자기 동생들을 거두는 어,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게 너무 고맙고 처음에는 누님, 누님 했다가 나중에는 인제,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했을 거 아니예요. 퇴학 당하고 서울에 배재로 올라오게 됩니다. 배재학당에. 네. 거기 배재학당에 졸업, 몇 회 졸업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인제 또 그, 우리 시어머님 옥바라지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시어머님은 영명에서 다시 또 몇 군데 학교를 거쳐 가지고, 호수돈학교로 그 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제 그 과정에, 이렇게 학교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동생들을.

○ 조화벽이 발령난 학교는 영명학교, 호수돈 여학교, 배화여고 등 주로 기독교계 학교였으며, 조화벽의 유품 중에는 배화여고 글자체가 새겨진 은수저가 전해져 내려온다. 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가 해당 학교에 문의하니 조화벽이 근무하던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근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 김정애: 우리 시어머님이 하신 것이, 저기, 교사. 네, 네. 호수돈에도 있었고 배화에도 있었고, 루시, 루시에도 있었고 여러, 진성학교에도 있었었고. 이런 여러 학교를 다니시면서.
- 연구원: 몇 살 때까지 이렇게 교사 같은 걸 하신.
- 김정애: 어, 이것이...아무튼 중년 이후. 우리, 우리 시어머님의 친정어머니가 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략) 인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 살면서, 그 어머니 시중도 들고. 그러면서 뭘 했느냐, 정명학원을 세웠다고.

○ 조화벽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병간호를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양양으로 갔고, 거기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정명학원을 설립하게 된다.

- 연구원: 아, 그러면서 인제, 어머님 시중을 들면서 아버님이랑 정명학원을. 계, 정명학원 같이 설립하고 이사도 하고 같이 했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정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죠. 그렇지만 정명학원을 하시면서 어, 그 때에 많은 학생을,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지도하셨다는. (중략) 그 때 당시로서는 가난한 농촌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못 가니까, 개네들을 가르치셨다고.
- 김정애: 아유 보통이. 그래서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 별명이. (중략) 근데 남자 녀석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여, 여자 선생님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따귀도 때리고 뭐 무서웠대요.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이로,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

○ 조화벽은 아버지와 함께 세운 정명학교에서 이사 겸 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운영자 겸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다 보니 누구보다 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칭을 달게 된다. 하지만 정명학교는 1944년 광복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정명학교 설립과 운영은 농촌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연구원: 정명학원 때. 그 때 그러면 이 때 조화벽 선생님 연세가 대략 언제쯤 된 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 연구원2: 한 40대? 50대?
- 김정애: 글썄 이. 이것이 몇 년대라는 것이 나오면 계산이 나오는 거죠.
- 연구원: 꽤 젊어 보여서, 어.
- 김정애: 이거는 사촌 시동생, 동서.
- 연구원: 정, 정명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고 했어요, 무료로?
- 김정애: 글썄 그거는 내가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돈을.
- 연구원: 안 내고도 배운 애들이 있었죠?
- 김정애: 네, 조금 받았겠죠, 네.
- 연구원: 조금 받거나 안 받는 애들도 있고, 제대로 받는 애들도 있고.
- 김정애: 농촌에 정규 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는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정명학교 시절 여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



〈정명학교 시절 남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정명학교 시절〉

마. 조화벽, 경제적 가장

○ 조화벽은 유관순의 두 동생과 유우석 남편의 뒷 바라지 등을 위해서 교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밤에는 길쌈 등을 하면서 돈 되는 일을 밤 낮으로 하였다. 무릎이 안 좋아서 며느리 김정애는 중풍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길쌈을 하면서 모시를 무릎에 대고 문질러서 생긴 질환이라고 하여 매우 놀랐다고 한다. 조화벽은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적 가장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 순간도 이를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 김정애: 그러니까는 뭐, 이, 수시로, 저 돈 생길 만한 일은 수시로 했다고요. 그런데 뭘 했느냐. 저기 길쌈도 땀어요, 길쌈.
- 연구원: 길쌈 매셨다고요?
- 김정애: 네. 밤에, 밤에 길쌈을 하고.
- 연구원: 학교 선생님?
- 김정애: 선생님 노릇 하고.
- 연구원: 선생님 하시면서 밤엔 또 길쌈하셨다고요?
- 김정애: 길쌈도 하고.
- 연구원: 애들 키우고, 남편 그 옥바,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셨단 말이죠?
- 김정애: 네. 그러니까 그 생활이.
- 연구원: 시간은 낮에는 애들 이렇게 돌보고, 직장 다니고, 또 밤에는 길쌈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요?
- 김정애: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왜, 저, 중풍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릎에다가 밤낮 그걸 비빈대요. 길쌈하느라고.
- 연구원: 길쌈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 김정애: 이를 뭐 자꾸 실을 만들고. 그래서 그 무릎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 연구원: 그래서 길쌈을 하도 문질러서?
- 김정애: 네.

○ 조화벽은 여성으로서 경제적 가장 역할을 평생 동안 수행했는데, 그 역할을 며느리 김정애도 이어받았다고 한다.

- 김정애: 그니까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는 너도 돈을 벌어서 이런

얘기예요.

- 연구원: 그러니까 게, 남편 유우석 선생님이 정치하느라 돈 안 버니까, 결국 생계를 다 책임지셔야 돼.

○ 김정애의 남편 유제충도 시아버지인 유우석의 뒤를 이어 독립노동당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인 김정애가 경제적 가장 역할을 평생동안 수행했다고 한다.

- 김정애: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준 일이 없어요. 직업을 가진 일이 없어요.

■ 연구원: 유제충 선생님도?

■ 김정애: 네.

■ 연구원: 그러면 시아버지 기냥 대물림을 그대로 하신 거네?

■ 김정애: 네. 우리 남편이 정치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직업을 가진 일이 없어요. 저하고 사는 동안에.

○ 유관순 집안 남성들과 결혼 다른 여성들도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적 가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유우석의 동생 아내인 작은 어머니도 기동차 대표원으로 일하다가 돌아가셔서 김정애는 생전 처음으로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일을 해 보았다고 했다.

○ 또 한 분은 유관순 집안 목사와 결혼 했는데, 살림이 궁핍하여 백화점 점원 노릇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고도 했다.

- 김정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나는 우유배달 해서 먹고 살고 있고, 뉴욕주에 있는 큰딸은 목사부인이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가서 또 너무 고생해 가지고 암이 걸려 가지고,

○ 조화벽은 어려운 생활을 지탱해나가기 위해 아들 결혼 식 때 입은 한 복을 평생 동안 입으셨고, 밥에는 늘 고구마를 넣어서 먹었고, 제대로 된 반지를 평생 동안 제대로 끼어 본 적도 없이 그야말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었는데, 그래도 생활하기 어려운 비상 시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양자에게 물려주었던 부모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지안 살림에 보탤다고 하니 호위호식이나 부귀영화 같은 것은 처음부터 꿈 한번 꾸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변함 없이 평생을 사셨다. 그럼에도 성격은 차분할 것 같은데 호랑이 선생이란 별칭처럼 엄하기도 다혈질이기도 했다고 한다.

- 김정애: 그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남독녀 외딸인데다가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하고 어머니가 전도부인을 하고 그 소득이 다. 그래서 발이랑 이런 걸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곤궁할 때, 제가 직업을 안 가졌을 때에는 곤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고향에 갔다 오시면은 땅 한 미, 마지기를 팔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시어머님이 어 무남독녀 외딸이니까 그 대단하거든요. 그니까 그 양자로 들어온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뇌라 하면 내 놓는 거예요.
- 연구원: 그니까, 그래도 아주 힘든 때에는 팔아서, 여기,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게끔, 비상 시에는 그.
- 김정애: 그래, 그러신 거 같아요.

바. 아나키스트와 조화벽의 노동운동

- 조화벽의 운명의 길은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의 결혼으로 최종 확정된다.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일제시대에 조선의 왕정정치와 일제의 식민탄압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독립운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유우석은 독립 이후에도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의 가치를 지속했으며, 독립노동당이란 정치활동을 평생동안 했다고 한다.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로 부류되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늘 소외된 그룹에 속하였고 오랫동안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한다.
- 유우석은 독립된 이후에도 아나키스트라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해야 했는데, 조화벽은 이를 한 마디 불평이나 후회도 없이 모두 감수하면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니 조화벽 역시 아나키스트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지 않았을 상상해 본다.
 - 김정애: 5·16 군사혁명. 우리 시아버님은 5·16 군사혁명 나 가지고 체포되었어요. 아들도 체포되고, 어, 시아버님도 체포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나중에 아니, 알아보니까, 우리 시아버님은 아나키스트였어요.
 - 김정애: 아나키스트고, 그때에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정치적 화법이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당활동을 못 하도록.
 - 연구원: 그러면 게, 옥고도 치르신 거예요, 아니면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오신 거예요?
 - 김정애: 아, 잡혀 갔다가 얼마 후에 풀려났는데, 그것은 우리 시아버님이 조병욱 박사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아 나는 조병욱 박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진짜거든. 그래서 시아버님이 풀려났죠.

- 김정애: 네. 그럼요. 우리 시아버님은 5·16 군사혁명 나니까 사회주의자 빨갱이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 우유석과 조화벽의 아들인 유제충도 정당 활동을 했는데 유우석이 독립노동당을 했기 때문에 정치부장 또는 청년부장으로 불리는 직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화벽과 며느리인 김정애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가정을 지탱하여 나갔다.
- 남편 유우석은 독립 이후 아나키스트란 죄명으로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의 좌표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뒷 바라지를 조화벽이 다 감당했다. 정치 연설 같은 경우도 남편 유우석 보다 조화벽의 말 솜씨가 뛰어났고 당대의 지명도 높은 여성 지도자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서 차라리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가 정치를 하셨다면 어떠 했을까 상상을 해볼만 하다.
- 김정애: 언변은 안 좋으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요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천안에서 출마했을 때, 말씀을 잘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가서 가지고 찬조연설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연설을 잘하셨어요. 또 아들이 출마했을 때, 또 거기 가서 또 어머니로서 찬조 연설을 하시고.



〈노년의 조화벽〉

사. 나가는 글

- 남편 유우석도 죽고, 아들 유제충도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김정애 단 둘이 여생을 보내는데, 조화벽이 며느리 김정애를 몇 번을 불러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불러서 말했다. “너는 내 며느리지만 아들이고 딸이다”. 김정애는 조화벽의 이어 달리기 바톤을 넘겨 주었다.
- 조화벽의 가슴 속에는 젊은 시절 노동 운동을 하던 젊은 시절의 열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녀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정애: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활동만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하셨냐 하면은 그, 원산에 그 파업이 있었다고 그러대, 그 노동장에서. 그 때에 그 분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셨고. 거기에.
 - 연구원: 근데 그, 그 그런 노동자들을 여성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노동현장이 거칠고 막 특별히 어업 같은 거, 어선 타고 그런 텐데. 이제 그런 쪽까지 이제 노동운동에 관여를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랬다는 것은.
 - 김정애: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노동운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 이런, 이거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 연구원: 게 성격이 괘괄하고 하셨다니까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그.
 - 김정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노동 운동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정계로 나가셨더라면 아마 활발히 하셨을 거예요.

6. 김현경, 안주하지 않은 운동가⁹⁾

가. 들어가는 글

- 김현경 하면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 누군가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일이 그리 쉽지않은 않았을 것이다. 유관순을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이나 친인척도 있었고,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들도 있었다.
- 그녀는 서울의 정신여학교, 공주 영명학교, 이화학당을 나온 당 시대의 여성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주요 학교들을 다니면서 당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 그녀는 공주에서의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독립운동의 치열한 독립운동을 거친 후,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로 유학간 남편이 죽은 후 딸과 함께 인천, 서울, 홍성, 서울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 그녀는 남편 사후 인천 방직 공장에서의 사감 역할, 숙명여대에서의 사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어느 곳에서든 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조용히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고뇌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6.25 전쟁 이후에는 홍성에서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홍성 교회 부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과 교육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30여년 동안 하였으며, 70 대 노후에는 동네에서 성경책 등을 파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다.
- 김현경 그녀는 평생을 어느 한 곳에 안주 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정신여고 시절에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삶의 지침을 전 수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여운형 방식의 삶의 가치 추구는 당 대 사회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지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9) 이 글은 2019년 5월 29일 익명의 모 일식 집에서 이전에 신문기자였지만 지금은 은퇴한 김현경의 조카 김광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 김현경 그녀는 지식인, 신앙인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당 시대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고, 향후 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역사적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김현경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를 더욱더 치열하게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나. 조선 말 무관 해체로 아버지 따라 공주에 내려 오다.

- 김현경은 조선 시대 말기 무관 제도가 해체되면서 당시 무관이었던 아버지가 일종의 실업 상태가 된 상황에서 고향인 공주로 내려오자 함께 내려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무관들은 무관제도가 해체 되었을 때 만주 등 무장 독립을 하던 곳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고향으로 낙향하여 살았던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김현경의 아버지는 낙향을 선택한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원: 김현경 선생님의 아버님이 무관이었다가 낙향했다고 했는데, 또 구두방을 운영했다는 얘기.
- 김: 아, 구두방을, 짚집, 구두방, 뭐 맞는 얘기.
- 연구원: 그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무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 김: 아니, 기술이 없으니까. 뭐, 공주 그쪽에 얘기하고, 무관.
- 연구원2: 게 무관으로 있다가, 그, 그게 해산되고 난 다음에 일부가 인제 그 박승대의 그 회장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면서 거기, 서울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는 의병으로 합류를 하고, 그 외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전국에. 고향으로 다 흩어져서 돌아가는데, 고향을 돌아가서 독립운동가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낙향해서 삶을 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어요. 아마 후자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 김현경의 아버지가 구두방을 운영하신 것은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하던 일을 배워서 시작한 것으로 안정적인 큰 돈벌이는 아닌 듯 싶다

그니까 뭐 그냥, 별 배운 거 없이 저기 하나까.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일제 시대 때 작은할아버지는 논산 쪽에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부여 쪽에 계시고, 그냥 뭐 아버지한테 배운 구두 수선하는 거 하고 뭐 그렇게.

○ 김현경 아버지의 함자는 김상혁으로 흑부리 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했단다. 그래서 김현경은 흑부리 장군의 딸 혹은 구뎡방 흑부리 장군의 딸로 불려지기도 한 모양이다. 그리고 공주에서 구뎡방을 운영 하시다가 얼마 후 부여로 이사를 간 모양이다.

- 연구원2: 정확하게, 누가, 누가 무관이셨어요?
- 김: 저희 할아버지, 김상혁.
- 연구원2: 김 자, 상 자, 혁 자, 할아버지?
- 김: 예, 증조할아버지.
- 연구원2: 이 분이 그러면 김현경 선생님의?
- 김: 아버지.
- 연구원2: 아버지되시네요.
- 김: 네. 근데 또 예전에는 흑부리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 연구원: 흑, 흑부리 할머니라고, 또, 뭐, 김현경 선생님.
- 김: 아니, 아니.
- 연구원2: 흑부리 장군.
- 김: 여기 쪽에 흑이 나셨다고 그러더라고.

○ 김현경은 아버지를 따라 공주로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정신여학교를 다녔고, 공주로 오면서 영명학교로 학교를 옮겨서 수학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공주로 내려오기 전 정신여학교에 여운형 선생을 만나다.

○ 김현경은 공주로 내려 오기 전에 서울에서 정신 여학교를 다녔다. 김현경이 정신 여학교를 다닌 것은 서울에 살던 때 아버지가 무관이셨고 무관들이 주로 살던 동네가 창경궁 근처인 서울대학교병원 근처였고, 정신 여학교가 바로 집 인근에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김현경은 서울에서 정신여학교를 다니다가 1917년 18세 쯤에 공주로 내려가 영명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계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여학교에서 2년을 수학하고 영명학교에서 1년을 수학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화학당 전문과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 여성 지식인을 양성하던 학교들을 두루 섭렵한 셈이다.

○ 김현경의 삶의 이정표에 첫 번째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신여학교의 여운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운형은 정신여학교에서 2년 정도 영어교사를 했는데, 그 때 김현경이 여운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운형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운형의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김: 네. 그러니까 기독교계 학교는 다 거친 거죠. 연건동은 그러니까 바로 집, 본가, 저희 살던 데가 서울대학병원 자리 바로 고 자리니까. 그게 정신여학교 고 건너편이고 그, 그렇게 다녔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 17년도인가에 내려갔을 거예요.
- 연구원2: 아.
- 김: 제 얘기는.
- 연구원2: 그, 그 이전에 정신여고에 있었다.
- 김: 정신여고에.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마 그 쪽에서 얘기가 저, 여운형 선생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운형 선생님이지.

○ 김현경이 여운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공주에서 3·1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서울에서 가져오지 않고 상해의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인편으로 직접 전달받았다는 인터뷰 내용과 당시 영명학교 학생이었던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이 등사에 참여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유우석은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이다.

○ 만일 김현경이 독립선언서를 서울로부터 전달받지 않고 상해 여운형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한다면 31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독립선언서는 통일된 한 가지 버전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주의 3·1 운동도 서울과의 연계 방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해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공주 3·1 운동에 대한 해석과 김현경의 3·1 독립 운동사에서의 위상과 역할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김: 그래서, 서울분이라서, 서울에 왔다 갔다를 하시면서 공주에서, 주로 연락처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당신이 그 때 직접 얘기한 게,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상해에 계신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인편으로 몰래 받아서 그거를 완. 그 얘기가 그, 거짓말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생, 이게 생전에 하신 인터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유우석 데리고선 뭐 등사하고 트**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생전 인터뷰에 어떻게.

- 연구원2: 전달을 받아서.
- 김: 예, 그런데 그 얘기가 또 참, 독립선언서가 서울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속적으로 여운형 선생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해에 계신 여운형 선생님께서로부터, 인편으로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연구원: 그게, 대부분 인제 서울 이대 뭐 그쪽, 그, 서울 독립선언 했다고, 그 쪽에서 이렇게.
- 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인편으로 상해에 계신 여운형 선생님께서로부터, 인편으로 독립, 독립선언서 자체가. 저는 또 새로운 의심을 또 갖는 게, 독립선언서를.
- 연구원2: 공주에서 발표된 독립,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어, 모어도 있었지만, 독립선언서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 김: 그러니까 그 상해에 계신. 그래서 독립선언서, 제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오등은 자에, 이렇게 얘기, 예전에 그거 아닌 것이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해요. 거기서.
- 연구원2: 독립선언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어요. 상해에도 있고, 만주하고 이쪽에도 있었고.
- 김: 그래서 그 때 것을, 그거를 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인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상해에 계신 여운형 선생이 보낸 거를, 인편으로 보낸 거를, 받아서 이렇게.

라. 공주 3·1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다

- 인터뷰에 의하면 김현경은 공주 3·1 운동에서의 충남 총책, 연락책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여운형 계통의 독립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결과라고 추정해 본다.
 - 김: 예, 예. 그리고 인제 지금 저, 독립선언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독립선언서를, 인제 충남, 본인이 인터뷰 할 적에 생전에 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맞. 충남 총책이었다. 충남 총책, 연락책이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김현경, 저희 저, 할머니가. 그거를.
- 김현경은 공주 3·1 운동에서의 충남 총책, 연락책이기도 하면서 만세운동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앞장 선 것으로 여겨진다. 3·1 운동 당시 칼에 맞았던 상처 흔적이 정수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까지 만세를 불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유치장에서 피가 범벅이 된 채 누워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김현경은 3·1 만세 운동에 몸과 정신 모두 치열하게 참여했다고 하겠다.

- 김: 어, 있었어요. 여기에. 딱 정수리 쪽에. 그, 이게 칼 맞았다고 하고, 감박, 그 다음에 내가 인제 기사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성신보인가에 아마 그, 공주 3·1운동은 만세운동은 4월 1일날 한 거잖아요. 4월 한 10일이나 그 정도에 한성신문인가에, 그, 김현경 관련해서, 뭐, 유, 유치장에 들어가면서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건 뭐. 그건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고.
- 연구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눈 떠보니까 그, 뭐, 경찰서, 뭐. 어디라고 또 기사가 돼 있던.
- 김: 아니, 아니, 들, 들어가면서까지 칼을 맞아 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면서 외쳤, 게 들어갔다는 게, 당시의 신문, 한성신문, 아마 그게 이덕규 교수 논문엔가 어땠던가 그럴 거예요.
- 연구원: 그러면 그.
- 김: 저도 들었어, 그 얘기는. 여기 칼 맞아 가지고 이쪽에.
- 연구원: 그 얘기, 그 얘기는 하여튼 했던데, 기절을 해 가지고 그 유치장에서 깨어났다고.

마.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하다

○ 김현경은 감옥에서 출옥한 후 이화여전(이화학당 전문과)에서 보육을 전공하였다. 당시 이화학당에는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중심으로 전문과 학생 중심으로 김란사가 이끌었던 이문회가 있었는데, 그 이문회 명단에 김현경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 만일 김현경이 이문회에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여운형 이후 두 번째로 삶의 이정표에 대한 가치를 설정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김: 그리고, 그러니까 영명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인제 출옥, 인제 6개월인가 만에 나오서 가지고, 이화여전에 다닌 거 아니에요? 이화여전에 그래서 인제 유관순 인제 얘기 인제, 전문과를 다닌 거죠. 전문과 보육과죠, 지금 얘기하는.
- 연구원2: 유관순 열사는 보통과고, 이 분은 위에.
- 김: 예, 전문과.
- 연구원2: 위의 과라고 들어가는데.
- 김: 그래서, 거기서, 전문과에서 인제 보육 전공을 하신 거죠.
- 연구원2: 그러면 이 분이 그, 그 당시에, 1919년도 요 전쯤으로 해서 18년도, 17년도 18년도 요쯤 됐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전문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 이화학당에 서클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인제 이문회라고 만들어졌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문회하고 연관이 됐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유관순 열사는, 이문회는 그 당시에는 보통과 학생 못 들어갔어, 전문과 학생이 들어갔어요.

- 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화학당이라는 게, 전문과하고 보통과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문과는 대학이고,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데 저기 이화학당, 옛날같이 배재. 지금 이화여고 자리. 그 쪽에 아마 저기 이럴 거.
- 연구원2: 그러면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전문과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서클이 이문회예요. 이문회에, 이 이문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왔던, 그, 그 교사가 바로 김난사 선생이에요. 그럼 김난사 선생하고, 유관순 열사가 김난사 선생 제자라고 했던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김현경 선생님이 지금 이, 그, 김난사 선생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문회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운영했기 때문에.
- 김: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아마 차이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진 사람들이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엔 여운형 선생하고 엮이면 이제 공산주의자. 이랬던 시절이었을 거 같아, 제가 보기가.
- 연구원2: 이문회는 말 그대로 해외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다, 국제정세를 논하는 장소였던 말입니다. 거기에 이문회, 딱 가입했을 고 정도 시기였던 거 같고, 고 명단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당시에 인제 그 써클이 한 7~8개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문회가 거의 주도였거든요.

○ 김현경은 이화학당 수학 중 후세에 기억에 길이 남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화학당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감옥에서 순국한 유관순의 시신을 수습한 것이다. 유관순은 영명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고,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도 영명학교에 다녔고 거기에서 김현경과 함께 3·1 독립 운동을 하였으니 김현경의 유관순 집안과의 인연도 범상치 않아 보인다.

- 연구원2: 제일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어, 유관순 열사 돌아가시기 전과, 직전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의를 한 사람이 바로.
- 김: 수의를 꿰맸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 연구원2: 수의를 하신 분이 그.
- 김: 예, 그거는 공적조서에 그쪽에 써 있던 거 같아, 내가 볼 적엔. 수의를 직접 꿰매서, 그, 그게 이화학당, 아펜젤러.
- 연구원2: 아펜젤러,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같이.
- 김: 선교사하고 같이 인수받아서 화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 연구원: 이화...학당이, 또 거기에서 또 좋은 수의를 만들어서 또 그 했다고...얘기도 있는데. 그니까.
- 김: 아뇨, 정확한 거는, 저희 저, 아마, 고모할머니께서 하신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 연구원2: 피범벅이 돼서 나오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가.
- 김: 그거 수습 해가지고, 다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단은 있었어요.

바. 결혼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지난한 삶

○ 김현경은 이화여전 졸업 전후인 25세 쯤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결혼 시기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결혼 직후로 여겨지는 1922년도에 홍성에서 청년회 활동 등을 한 기록으로 봐서 결혼 생활도 자신의 안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 연구원2: 1922년도에 7월달에 홍성에서 이, 그, 김현경 선생님 있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 김: 1922년?
- 연구원2: 1922년 7월 달에.
- 김: 22년이면 결혼했을 때예요.
- 연구원2: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움직인 거 같고, 그 다음에 남편 영향이 많은 거 같고, 그 다음에 24년도 돼 가지고, 청년집회하는 데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넘어 갔으면, 결혼하고 그 쪽으로 간 거 같아요.

○ 김현경의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안타깝게도 돌아 오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농학을 공부하러 갔다는 말도 있는데, 인터뷰에서는 남편이 당시 목사 혹은 전도사로서 서울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농촌계몽 운동을 위해 농학을 공부하러 갔던, 신학을 공부하러 갔던 전공은 확실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불의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김: 제 얘기는. 김현경 선생님, 지금 저희 고모할머니 남편이 박 모씨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박, 변호사, 나 저, 목사로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목사셨는데 덴마크 가서 어떻게 뭐.
- 연구원2: 박성철 선생님인 거 같습니다. 맞죠? 박성철 선생님.
- 김: 그렇...
- 연구원: 목사였는데 덴마크로 유학 갔다 뭐 그런...
- 김: 교통사고로, 그 나이, 그 때면 뭐 한창 일제 시덴데.

- 김: 유학을 갔다 오지도 않았잖아. 거기서 현지에서, 현지.
 - 연구원2: 현지에서 돌아가셨다?
 - 연구원: 현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 김: 그거는 다를 거 같아요. 현지에서 돌아가셔서. 그 때 현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하고, 운구 해왔는지, 화장을 했는지, 그 얘기까지 모르겠어, 내가.
- 김현경 남편 집안의 경우 덴마크로 유학을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세는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의 가세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김현경은 남편 사망 후 홍성에서 어느 정도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홍성을 떠난 것은 확실하다. 김현경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딸의 양육을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김현경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였는지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천에 있는 방직 공장 사감과 숙대 사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당시 사감의 역할이 어떠한지, 방직공장과 숙대에서의 사감 역할이 어떠한지 가능해 볼 자료는 없지만 기록치 않은 생활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 그 혼자 돼서 그 뭐 인천에 있는 동양, 인천 쪽에 계시고 그래서. 동양방직 사감, 뭐 기숙사 뭐 이런 거를 아마 하셨던 거를 하셨던 거 같아.
 - 연구원: 아, 사감 역할도.
 - 김: 그건 마지막.
 - 연구원2: 동양방직 사감?
 - 김: 네.
 - 연구원: 동남방직?
 - 김: 동남인가, 동양방직인가.
 - 연구원: 인, 인천 쪽에서?
 - 김: 예, 예.
 - 연구원: 이렇게, 여, 지역을, 인천도 가시고 홍성도 가시고.
 - 김: 아, 그렇죠. 아, 아니, 홍성은 나중에 가신 거야.
 - 연구원: 나중, 예.
 - 김: 유치원장으로 부임했던. **을 숙대 사감 끝내고 가셨어요.
 - 김: 그거 아마, 얘기 좀 하시면은. 사감 마지막에 한 거는 숙대 사감이예요. 그건 확실한

거 같은데...그 즈음에 아마 인천 쪽에, 일제시대 때, 방직회사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니까 그 쪽에 사감 뭐 이런 데로, 사감 전전하신 거 같아. 그러면서 딸 키우신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밝혀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사. 홍성으로 내려가 교회 유치원 등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다

○ 김현경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의 생활을 한 후 40세 경에 홍성으로 내려와 30여년 동안 교회 장로서 교회 부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홍성부인회 등의 사회활동을 하셨다.

- 연구원: 김현경 선생님이 장로까지 하셨으면 전도사라든지 목사 이런 것도 다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
- 김: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 당시 보육을 하고선 유치원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 연구원: 그 정도.
- 김: 애들 교육하고 이 뭐 고아들, 전쟁고아 키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거 같더라고. 그래도 홍성교회.
- 연구원: 전쟁고아 키운다고요? 6·25?
- 김: 네. 그런 사람들, 거기 어디 뭐 기사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홍성 쪽에. 그런 사람들 지금 한 70~80 됐겠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70?
- 김: 홍성에서, 말년에 다. 나머지 아마 그게 다 전부일 거예요. 홍성에서 계신 게 전부 같은데, 거의. 해방 후일 거 같아, 홍성이.
- 연구원: 젊었을 때는 공주 요쪽, 그 다음에 40대 이후부터.

아. 나가면서

○ 김현경은 남편 사후 재가를 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면서 전쟁 고아 등을 돌보는 등 일신의 영화나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온 생애를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가짐으로 사셨다.

- 연구원: 근데 복지라든지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김현경 선생님이 이렇게, 가족들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뭐, 왜 그랬을까요?
- 연구원2: 아니,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까.
- 김: 그래도 혼자 살면서, 여기를, 딸을 저, 키워서 시집보내고.
- 연구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많은데.
- 연구원2: 아니야, 아니야. 그 여성독립운동가들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선생님.
- 연구원: 다 비슷해?
- 연구원2: 다 비슷해. 그니까, 서대문형무소 옥고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식 못 낳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고아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해요.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요, 선생님.
- 연구원: 경제 활동이나 뭐 재가나 이런 덴 관심이 없고?
- 연구원2: 재가에는 다들, 재가 안 해요. 재가는, 재가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할 일이 많다는 걸 그 분들 알기 때문에.
- 김: 재가는 대표적으로 김대중,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
- 연구원2: 예, 그니까 이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세나 아니 6·25까지 겹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재가하고 말고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 연구원: 고아라든지 뭐 힘든 사람들을 3·1운동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바라...계속 그런.
- 연구원2: 그런 정신이 이어진 거예요.

7. 이애라, 꺾이지 않는 열정¹⁰⁾

가. 들어가는 글

- 이애라는 20살에 결혼하여 자녀 셋을 낳고 키우면서 국내와 국외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이가 일경의 손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 이애라는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28살의 불 같은 투혼을 태우며 생을 마감했다.
- 누가 이애라를 기념하며 기억해야 할까 ?

나. 유년기와 이화학당에서의 교육

- 이애라는 본명이 아니고 세례명이라고 한다. 본명은 이심숙, 모태신앙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혼 전에 기독교에 입문했고 세례를 받았고, 이후 기독교 학교인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다.
 - 연구원: 근데 선생님 집안에서는 인제 감리교,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신...갑자기 이제, 이애라 선생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집안에 와서 이렇게.
 - 이신영: 아니, 이애라, 애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명이예요.
 - 연구원: 세례명은 인제 천주교.
 - 이신영: 그 때는 다 천주교지, 처음엔.
 - 연구원: 아.
 - 이신영: 천주교도 그 쪽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우리 할아버지는 감리교, 감리교 신학을 하셨는데, 하여튼 세례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다 세례를 주잖아요. 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명을 보통은 안 줘, 지금 교회에선 안 주는데, 그 때 당시엔 아마 세례명을 애라라고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0) 이 글은 2019년 7월 31일 이순신 장군의 13대 손, 이애라의 장손, 소망교회 장로이신 이신영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 인터뷰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대표 심옥주, 충남대학교 유소연이 함께했다.

○ 이애라 10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화학당 교장 미스 프라이시가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와줬다고 한다.

- 이신영: 어, 그러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할머니로 돌아 가면은, 할머니는 그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같아요. 그 뭐 10세 때 돌아가셨다니까. 10세 때 돌아가서 가지고 외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 자매를 저기 이화학당에 입학 을 시킵니다. 입학 을 시켜서 신학문을 공부 를 시키는데, 외할머니도 15세, 할머니가 15세 됐을 때 또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서 힘, 이제 생활이 힘드니까.
- 연구원: 근데 이화학당에 이렇게 보내는 게 그 당시에 쉬, 쉬운 게 아니잖아요.
- 이신영: 글썽, 그건, 그 내용은 잘 모르겠. 그 때, 그, 외할아버지도 아마 뭐 시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대궐에 무슨, 무슨 일을 맡아서 하신 거 같아요. 그 무슨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화학당에 있는 그, 교장 미스 프라이시가 있었다 그래. 그, 미스 프라이시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 줬다고 그래요.
- 연구원: 아, 이애라 선생님을?
- 이신영: 음, 우리 할머니를. 그래 가지고 이제 졸업을 무사히.
- 연구원: 아, 장학금을.
- 이신영: 그러겠쥬.

○ 이애라가 충남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결혼과 연결된다. 이애라는 이화학당 선생들의 추천과 중매로 결혼 상대를 소개받게 된다. 당시 이애라에게 소개될 상대남이 충남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한문 등 공부를 가르쳤는데 워낙 일이며 가르치기를 잘했다고 한다.

- 이신영: 그 이애라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저기 공주영명학교 교감을 하셨답니다, 거기서.
- 연구원: 거기서 너무 훌륭한 교감선생님이 오셨는데 샤프 선교사가, 제가, 이렇게, 게 계속 여기에서 선생을, 선생님 역할 하게 하려면 누군가 짝을 지어서 있으면 참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뭐 이화학당을.
- 이신영: 중매.
- 연구원: 중매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사실로 이렇게 가문, 전해 내려오는 얘긴지 확인 좀 하고 싶어.
- 이신영: 예. 사, 사실, 저도 지금 이, 해 났는데.

○ 이애라가 공주 영명학교 교감 이규갑을 교회 행사에서 소개 받았는데, 만나고 보니 일전에 아산에서 노인들과 일본 경찰 간에 시비가 있었던 상황을 윈 청년이 중재하던 모습을 인상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소개남이 바로 그 때 아산에서 우연히 지나치며 보았던 사람인데 목사였다고 한다. 교감이기도 하면서....

- 이신영: 감리교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얼굴을 맞댄 거야. 근데 그 어디에 자료를 또 보면은, 그 때 봤을 때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어디선가 본 그런 감을 또 했대요. 이제 그 아산, 아산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고향이 아산이니까. 아산 어디에서 이제 왜경하고 이렇게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저 할아버지가 왜경들한테 막 멱살 잡히고 했을 때 이렇게 구출해 내는 것을 봤대. 그래 가지고.
- 연구원: 아, 사전에 한 번.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아니지.
- 이신영: 어. 그 때 기억을 하고, 지금 오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잖아. 목,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휴. 그,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아마 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 연구원: 그럼 연애를 하신 거네?
- 이신영: 그, 그렇지. 받아 가지고 연애를 했겠죠.
- 연구원: 아니 그 중매라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 이신영: 그게 이제 중매지. 첫, 첫, 그런 식으로 했는데.

○ 남편 이규갑이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군자금을 필요로 했다. 이애라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식들을 안고 업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공주, 천안, 수원 등을 근거지로 해서 애국부인회를 구성하면서 자금을 확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시작 했다.

박안라 할머니가 내쫓고 인제,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할머, 할아버지는 이 뭐 중국으로 소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때 할머니, 거기서 인제 우리 그 애국부인회라고 있어요. 애국부인회를, 애국부인회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게 해외에 많, 그 때 당시에 해외에서, 어디 야, 저기 상하이에도 본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직이 됐는데, 국내 조직을 할머니가 인제 다니신 거 같아요.

- 연구원: 상해도 있고 해외조직 있는데 국내조직을 인제.
- 이신영: 그렇죠.
- 연구원: 이애라 선생님이 중심으로 해서.

- 이신영: 공주, 천안, 수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거기 가 가지고 그런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
- 이신영: 그래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러시아, 아라사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아라사에 가서 규풍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는데, 할아버지는 소련에 아마 어디 독립, 그 독립군 사관학교를 창설을 했대요, 거기. 거기 교, 교장으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교장으로 있어서 전투에도 따라가고...그러는, 할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해서 자금을 또, 모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전달도 해야 되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대요. 그 경찰, 순사한테 여러 번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시고, 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원과 이런 데 다니면서 애국부인회를 만드는,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면서, 하여간 애가 셋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셋을 두고 인제 다니고, 막내딸을 안고, 막내, 둘을 두고, 안고 인제, 할아버지 찾아 나섰다는 거야,

○ 그 후 이애라는 일경의 표적이 되었고, 아산의 산속에서 여기 저기 숨어 살다가 일경이 온다는 말에 도망가다가 잘못 넘어져 손등이 다쳐서 손등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그후 계속되는 감옥 생활과 고문으로 성한 몸이 없었다고 한다.

- 이신영: 맨 작은딸 죽었고. 젓을 먹여야 될 테니까 안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작은고모하고 아버지 데리고 우리가 아산이 고향이니까 아산 쪽으로 내려가신 모양이에요. 아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저 숨어 사는 거지, 숨어서, 저기 하고 있는데, 또 일경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산속에 도망가다가 잘못 넘어져 가지고 손등이 저거 돼 갖고, 수술, 손등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할아버지도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돼서.
- 그 고문, 고문을 어떻게 많이 받으셨는지 할머,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 고문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님도 나한테 직접 보여주셨는데, 손, 발, 손등, 발등 어디 성한 게 없어. 여기를 대꼬챙이로 쑤셔 가지고, 손톱 발톱 있는 데를, 고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몇 번씩 당했다는 거야. 그 고문을.
- 연구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 이신영: 그렇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여러 번 옥고를 치렀어요. 할아버지는 공식적으로 33번인가 게 감옥에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 계속되는 감옥 생활과 고문 등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건 만 이애라는 군자금을 모으고 이를 전달하려는 일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남편 이규갑을 찾아 나섰는데, 웅기라는 곳 도착했을 때 일경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고 사경을 헤메이게 되었다.

그 때 마침 큰 아주머니 이규풍의 아들이 의사로 진찰하게 되었고, 이애라의 상태가 심해서 감옥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블라디보스톡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다.

- 이신영: 그래 가지고 인제 워낙 상태가 심하니까, 여기서는, 감방 안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이랑 또 가서 찾아야지, 치료를.
- 연구원: 그런데 어떻게 상태가 심한데도 게, 움직여서 갈.
- 이신영: 그러니까 인제 잡히자마자 심했는지는 모르지, 뭐. 잡혀가서 또 몇 날 며칠을 또 뭐 뭘, 그, 듣기로는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 대라고 인제 아마 고문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저, 당하고, 어쨌거나 애 둘하고 우리 할머니하고를 모시고 나와, 나와 가지고서는 바로 인제 블라디보스톡 뭐...

마. 마지막 삶

○ 이애라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마침내 남편 이규갑을 만난다. 그러나 남편 이규갑을 만난 지 며칠이 채 못 돼서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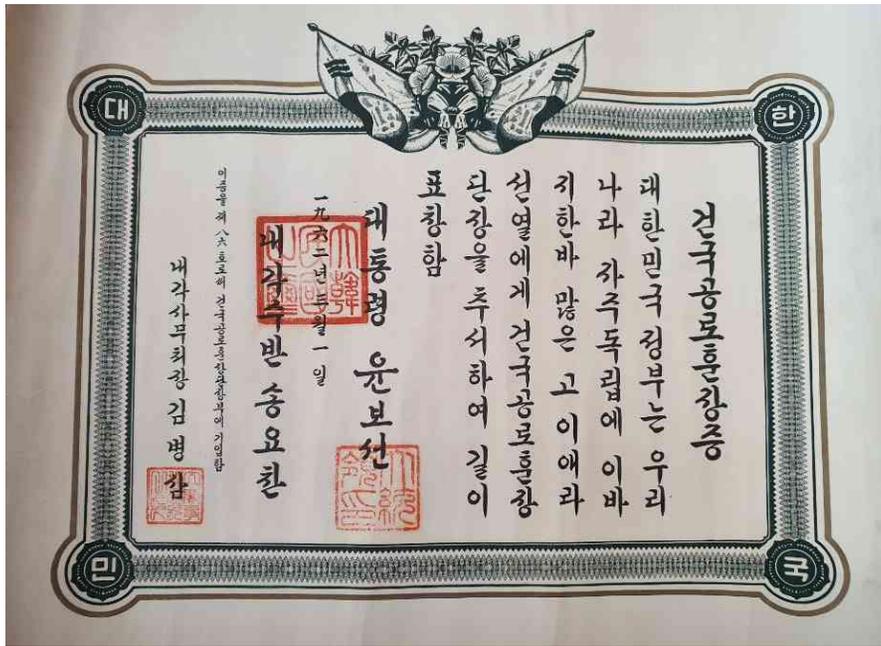
- 이신영: 예.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나? 도망을 가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도망을 가셨어요. 도망을 갔는데 블라디보스톡이 우리 독립운동의, 거기 가면 본거지가 많이 있대요, 그러는데 아주 마적단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형님 댁을 찾아보러 형님 댁에 갔는데 거기서 인제 몇 년 만에 할머니를 만난 거야. 할머니를 만나, 며칠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 이애라는 20살에 결혼해서 조국을 위해 불꽃 같이 정열적인 삶을 살다가 28세에 숨을 거둔다. 하지만 자신의 성과나 업적 아니 생애의 흔적을 남길만 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인터뷰 당시 이애라 사진이 없냐는 요구에 사진이 한 장도 남아 있는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사후에 받은 훈장 사진도 가지 오지 못했다고 했다. 훈장 사진이라도 나중에 보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첨부한다.

- 연구원: 가족 사진도 없어요?
- 연구원2: 없어요.
- 연구원: 이애라 선생님 함께 찍은...
- 이신영: 없어요.

- 연구원2: 혹시 그 분이 남긴 뭐, 뭐, 글이라든지 그 분이 남긴 뭐가 그런 건 없습니까, 유품 같은 것도 없습니까?
- 이신영: 없어.
- 연구원2: 그게 만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어머니 걸 그걸 뭐가 가지고 있을까 생각도 나는 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은 또 생전에, 그 할아버님은 생전에 오셨으니까, 또 그렇게 활동하셨으면, 그 분이 갖고 계시는 뭐가는 있었나 하는 것도 나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인제 문화재로도 나중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본 거예요, 선생님.
- 이신영: 그 뭐 남겨 놓은 거, 하나, 아무 것도.





○ 이애라를 증언하기 위해 인터뷰한 사람은 이애라의 손자 이신영이다. 이애라의 아들 이민철과 며느리가 손자를 손자들을 낳았고, 그 손자들 중의 한명인 이신영이 이애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 준 것이다. 이애라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대가는 이애라 자신이 가장 크게 치렀다. 이애라의 아들 부부의 경우는 아들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며느리 김은희가 만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했다. 며느리 김은희는 된장과 간장을 담아서 병에 담아 팔았고, 그 심부름을 손자 이신영이 하기도 했다고 한다. 손자 이신영은 그 시기에 누구나 했을 법한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팔기도 했다고 한다.

- 연구원: 여, 이, 아버님이 이민철, 저. 그럼 어머니 성함은?
- 이신영: 우리 어머니? 이, 아, 김, 김은희.
- 연구원: 김은희? 그, 어머니 얘기, 그.
- 이신영: 어머니 그러니깐, 만며느리 아닙니까. 만며느리로서 그, 새로운 할머니, 새로운 할머니하고 잘 생활을 많이 했죠. 시동생들 거느리, 두 시동생 거, 뒷바라지 해주고, 나이차가 많이 나.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고생을 많이.
- 이신영: 제가 우리 어머니 고생한 거는, 옛날에 이거, 이런 큰 병에다가 된장 같은 거 넣어서

팔잡아요. 그거 배달도 내가 많이 했어요.

- 연구원: 된장 배달을?
- 이신영: 간장도 했고. 장사, 어머니가...
- 연구원: 아, 그거 무슨 장사를 하셔?
- 이신영: 간장. 간장을 다려서...이런 병에다...집에서 한...
- 연구원: 배달, 아들하고, 배달시켜...
- 이신영: 하여튼, 아이스케키 통도 메고 팔아도 봤고.
- 연구원: 그럼 아이스케키는 알아서 했겠네요? 어머니 시킨 건 아니고?

- 남성 가게에게만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이순신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이애라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애라의 자손을 명기해 보고자 한다. 이애라의 아들 이철민과 아들 며느리 김은희, 장손 이선영과 장손 며느리 김창영, 증손자 이종민과 증손자 며느리 박예진, 증손자 이종무...

바. 나가면서

- 이애라는 증손자 이신영은 이애라 할머니는 남편 이규갑의 아내, 독립운동가의 아내라기 보다는 할아버지 이규갑의 동지이자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크게 보면은 그, 그냥 독립운동가의 아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으니까. 근데 독립운동가의 아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의 동지고, 예, 또 후원자고, 아내고, 아기 엄마 역할을 충실히 좀, 잘 이렇게, 하면서 일제에 항거를 하신 귀한 여성 독립운동가.

- 이애라의 남편 이규갑은 자신이 묻힌 묘소 무궁화 나무를 심고, 통일이 되면 커다란 눈을 그린 종이를 무궁화 나무에 걸어 달라고 유언했단다. 통일이 되면 이애라의 가묘 옆 무궁화 나무에도 커다란 눈을 그린 종이를 무궁화 나무에 걸어두어야 하지 하지 않을까?



성명 : 이 애라 (李愛羅) (一名 愛日羅)

생년월일 : 1894년 1월 7일생

출생지 :

사망년월일 : 1922년 9월 4일

사망지 : 소련

훈격 : 국민장

공적사항 : 이규갑의 처로서 부군을 도와 독립운동
활약타 왜헌에 피체 참살당함

묘소소재지 : 소련 (가묘 : 충남 아산)

묘소규모 : 100평

거기 할아버지 돌아가고, 거기에 뭘 맨 먼저 심었냐 하면 무궁화나무. 지금은 이렇게 커, 크다... 그 무궁화나무가 꽃이 아주 피면은 그냥 굉장히 좋아요. 아까 여기 왔던 것처럼. 근데 거기 날...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었다. 통일이 되면은 이만한 종이에다 눈을 크다랗게 하나 거, 그래서 무궁화나무에다가 걸어라. 요리셨어, 할아버지가.

- 연구원: 아, 무궁화나무로 환신해서.
- 이신영: 무궁화나무에 걸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겠다.

○ 누가 그녀의 28살의 불꽃 같은 삶을 기억하며 기억해야 할 것인가?

8. 향후 과제와 전망

-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드러나거나 느낀 점들을 향후 과제와 전망 형태로 제시하면 시군별 여성 독립운동가 혹은 인물에 대한 조사·발굴, 공주 영명학교 중심의 여성 독립운동가 및 여성 리더 연구, 사이애리시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물 재설계 등임

〈표 IV-1〉 향후 과제와 전망

구 분	내 용
1. 시군별 여성 독립운동가 혹은 인물에 대한 조사·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구에 의하여 천안 유관순, 공주 김현경, 예산 정정화, 배용순, 아산 이애라 등이 조명되었음. ▶ 하지만 전국적인 3.1운동 참여 여성독립운동가의 명단에는 천안 지역의 민옥금, 한이순, 황금순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과 인터뷰 대상자 발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하여 시도하지 못했으므로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발굴과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그 밖에 천안, 공주, 홍성, 예산, 논산 등 많은 지역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는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짐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인물 발굴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여성 독립운동가 뿐만아니라 지역의 주요 역사적인 여성 인물에 대한 조명이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2. 공주 영명학교 중심의 여성 독립운동가 및 여성 리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된 사실은 유관순, 김현경, 유우석 등 우리나라의 걸출한 독립 운동가들이 공주 영명학교를 다녔으며, 그밖에도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여성 리더들이 영명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것으로 여겨짐 ▶ 공주 영명학교는 서울의 이화학당이나 정신 여학교,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 이상 혹은 그에 버금 가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교육, 문화, 역사적인 산실이자 보고라고 여겨짐 ▶ 이에 공주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성 독립운동가와 여성 리더들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공주 영명학교 주변 혹은 중심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관이나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내 용
3. 사이애리시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구에 의하여 조명된 것은 유관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지원자는 사애리시라고 인정해야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사애리시는 유관순 이외의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 혹은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사애리시는 조선 시대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행인 여성 차별에 금기를 깨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의식을 근대화 하는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사애리시를 국가 포상자에 제안하는 방안이나 충남도나 공주시 차원에서 사애리시를 기리는 축제나 기념 대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사애리시 거리나 기념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물 재설계 및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물은 감동을 주기에 너무 빈약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는 데에도 부족하고, 유관순의 인간됨이나 사상 등에 대한 깨달음도 부족하고, 유관순이 처한 시대 상을 치열하게 이해하는데에도 매우 부족함 ▶ 이에 유관순 기념관 전시물 방향과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유관순 기념관의 전시물에 대한 재설계 후 전시물이나 이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충남 독립운동가 후손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발굴하여 필요 시 적절한 지원책을 수립함

〈 참고문헌 〉

- 고수연 외 9명(2018). 충남 여성의 삶과 자취,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김자동(2018).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 김자동 회고록, 도서출판푸른역사
- 김정숙·김종철·문희순·이명화·최영민(2018). 충남여성의 삶과 자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김종철 외(2017). 충남여성인물사 충남여성이야기 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종철 외(2018). 충남여성인물사 충남여성이야기 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송혜영(2019). 조화벽과 유관순, (주)달아실출판사
- 안성호(2018). 여성독립운동가 비교연구, 한국보훈논총
- 이태복(2019). 윤봉길 평전, 도서출판 동녘
- 정정화(1998). 장강일기, 학민사
- 조동걸(2007).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독립운동연구소
- 이명화(2011). 3.1운동과 조화벽의 삶, 사단법인3.1여성동지회
- 이정은(2011). 강원도 양양의 3.1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 조화벽 선생, 사단법인3.1여성동지회
- 이정은(2010). 유관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상도(2008). 유우석·조화벽 부부가 걸어난 한국근현대사, 백노류우석선생추모사업회
- 인터넷에서 조사한 충남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자료 다수 등

토론 I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항일여성독립운동과 충남 여성 관련 토론문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2019년 올 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획과 연구사업들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충남 출신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소홀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로 공훈을 인정받은 여성은 전체 19명입니다. 3.1운동 참여자가 12명, 학생운동 3명, 만주방면 2명, 중국방면 2명입니다. 특히 천안 출신 여성의 3.1운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공훈을 인정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활동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조망할 필요성이 높다는 생각에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발표한 ‘근대시기 여성들의 주권인식과 자주의식이 독립의식으로 나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큰 줄기를 짚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시대순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지역의 독립운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충남의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첨언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자의 말씀대로, 의외로 자료속에서 확인되는 충남지역 여성들의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사건들에 이름이 거론된다거나, 3.1운동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달 경상북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학술세미나에 갔다가, 경상북도 출신 여성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양상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서술하는 발표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집안의 일가족이 무장투쟁을 위해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한인촌을 구성하여 아이들에게 독립정신을 교육시키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단순히 남성들의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

하나의 독립운동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언급하는 홍주 의병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식사, 빨래, 화약 제조 등도 하나의 독립운동 영역으로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자금모집도 엄연한 독립운동 분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접 독립운동의 최전선 앞에서 행동을 해야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의미부여와 의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표자는 여성들의 도움 역할 등이 정절의식이나 성리학적 도덕관에 입각한 활동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대상황을 고려한 하나의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여성들의 참여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조직을 통한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파악하는 과정도 분명히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지부가 설립되었고 순회강연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참여가 높았고, 독립운동이 활발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전체 독립운동사 맥락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어떠한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성이나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이에 대한 치밀한 고찰이 있어야 여성들의 독립운동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남 여성들의 독립운동의 특성과 의의를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상북도의 공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22명입니다. 충남이 경상북도에 비해서 독립운동가 배출 명수로 봤을 때만 해도, 한참 뒤지지만 여성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충남지역 여성들이 독립운동이 침체되어 있다거나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외려 이들의 행동들을 치밀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하여 더욱 밝혀내고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남지역 여성교육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남지역은 1900년대 100여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야학이 30여개 설립될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계몽단체의 활동도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의 기회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만큼의 교육을 향유하였을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충남지역이 여성교육이 활발하지 못해 외지로 나갔다는 설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서울여학생운동에 참여한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가 외지에 나갔다가 보다는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학생운동에 몸담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역시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정신이 성장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혹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게 되면서 지역을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시기적인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이 배출한 여성 독립운동가 중 유관순이라는 큰 인물에 가려져 제대로 조망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공훈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자료에 입각하여 연구하여 의미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걸음마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정화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상이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충남 출신 여성의 독립운동가를 부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서훈받지 못한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충남의 독립정신, 나아가 충남 출신 여성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을 밝혀내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II

문 희 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이야기(김종철)’ 토론문

문 희 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종철 선생의 발제문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이야기’는 충남의 독립운동 후손들을 찾아가 인터뷰함으로써,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자 목숨을 바친 선열과 그 후손들의 삶을 증언을 통해 되살려 내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독립운동의 잔상이 진행 중인 것 같아 숙연한 감동을 갖게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밝혀져 추모와 서훈이 되기를 소망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로 공훈을 인정받은 여성은 신영숙 선생은 전체 20명(3.1운동: 12명, 학생운동: 3명, 중국만주지역 투쟁: 3명 등)으로 파악하였고, 정을경 선생은 전체 19명(3.1운동: 12명, 학생운동: 3명, 중국만주 지역 투쟁: 4명)으로 파악하였다. 중국만주 지역에서 투쟁한 여성운동가에서 1명의 오차가 있다. 어느 분의 파악이 맞는지 궁금하다.

둘째, 배용순은 윤봉길 의사의 아내로서, 처절하고 치열한 독립운동 가문의 삶을 살아낸 여성이다. 남편 윤봉길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25세의 나이로 순국하고,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살아낸 배용순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발제문 <라.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의 삶>에서 “본인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일제식민지의 탄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남편을 대했기에 젊은 혈기에 남편이 집을 나갔느냐’며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댁의 타박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용순은 차라리 죽으려고 곡기까지 끊으셨다고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물론 이 부분이 후손 인터뷰에 의존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주지하다시피 윤봉길 의사는 1930년 3월 6일 월진회 동료들이 마련해준 여비를 품에 안고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비장한 글귀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윤봉길의 귀에 쟁쟁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였다. 그리고 사형 직전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도 “너이도 万一 피가 잇고 뼈가 잇다면 반다시 朝鮮을 爲하야 勇敢한 鬪士가 되여라 太極에 旗발을 높피 드날니고 …”라고 썼다. 이러한 윤봉길 의사의 국권회복을 위한 불굴의 의지에 반하는, ‘어떻게 남편을

대했기에 젊은 혈기에 남편이 집을 나갔느냐' 라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셋째, 충남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발표하신 정정화 • 유관순 • 조화벽 • 김현경 • 이애라 이외에도 지금까지 알려진 분만도 적지 않다. 고명자(高明子, 1906 ~ 미상, 부여) • 김테레사(1796 ~ 1839) • 김복희(金福姬, 1901 ~ 1986, 아산) • 김인애(1898 ~ 1970, 서천) • 민옥금(閔玉錦, 1905 ~ 1988, 천안) • 박화숙(朴畧以斯, 공주) • 박안라(1853 ~ 1922, 아산) • 신명례(1915~?, 예산) • 오세라(1875 ~ 1939, 아산) • 유예도(1896 ~ ?, 천안) • 이옥란(李玉蘭, 서산) • 임영신(任永信, 1899 ~ 1977, 금산) • 차양순(車良順(1920~?, 예산) • 한이순(韓二順, 1906 ~ 1980, 천안) • 황금순(黃金順, 1902 ~ 1964, 천안)¹⁾ 등이 다.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와 독립자금 모집 등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양상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방면 후속 연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상입니다.

1) 이명화, 『충남여성의 삶과 자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191~251 참조.



토론
Ⅲ

위 기 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역사극에 대한 부채의식

위 기 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역사극은 역사와 문학, 두 가지 모두에 개입하여 일종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극렬하게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를 문학으로 가두기에는 아직 살펴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인지 역사극을 생각하면 늘 부채를 진 기분이다. 몇 편 창작하고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빛에 매번 허약한 자신을 절감한다. 역사 소재 극을 들여다볼 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가 영웅주의다. 영웅 한 사람의 시각과 가치관, 그가 겪는 곤욕과 역경을 통해 시대상황, 관계, 인물내면 등을 전달하는 구조. 이 과정은 반드시 주변 인물 몇이 희생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바라보거나, 주인공이 이겨내는 장애로 해석되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1인 주인공, 영웅의 행위는 옳고, 강하고, 아름답고 그 주변인들의 선택과 결정, 행위는 그르고, 약하고, 비열하며, 추하다.

이순신 장군, 그 누구도 국가적 영웅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순신의 영웅적 죽음이 왜곡되어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고집과 동료 장수들과의 갈등, 심지어 선조에게도 또 다른 면면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조금 더 다가서면 충무공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든 6,70년대 정치권의 저열한 속내까지 드러난다.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한 과거 정부 의도 뒤에 숨긴 수많은 사실에는 누구나 분노한다. 이는 누군가의 이익 때문이고, 지금도 이 '누군가'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 있다. 생각하면 몹시 두려운 일이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정확히 상충되는 의미로 반영웅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약하고 소외된 인물들이 많은 시대. 타락한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윤리와 고결함을 강조한다. 그 사이에서 자중지란을 앓고 있거나, 양심의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은 피지배 계급이다.

이 반영웅의 시대가 언제부터인지, 최고위계급이 어떤 술수로 반영웅 시대를 지켜내기 위해 영웅을 강조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 영웅은 남성이다. 여성 영웅이 없지 않으나 그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 남성 영웅의 업적은 수백만 적군을 물리치거나, 엄혹한 시대에 노비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대의와 명분은 물론 겉으로 보이는 멋과 흥에까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영웅은 제 아무리 용을

써봐야 남성을 도와준 것이 전부다. 항일독립운동기는 더욱 여성영웅들의 면모가 은폐되어 있다. 각종 여성독립운동 연맹이 결성되고, 그 활동이 두드러지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군에 대항하여 무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직접 총칼을 휘두른 남성 영웅들만 강조된다. 그것도 실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우리 남한의 정치세력 명분에 부합하는 남성 독립운동가에 한해서다. 그래서 더욱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내조에 그친 활동으로 축소, 폄하되어 있다. 그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주체적이었고, 자발적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에 주눅과 자기모순 따위는 없었다.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다. 그들 삶이 우리 삶과 직접 닿는 부분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날 시퍼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저평가 되든, 높게 평가되든, 이미 그들과 아무 상관없다. 다만 우리의 시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오직 문제라면 문제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없는 살림에 무장독립투쟁 요원들 밥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그들이 겪을 추위를 위해 어떻게 옷을 지어 입혔는지, 그들의 죽음을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 주었는지, 어떤 조직을 꾸렸고, 어떤 조직력으로 항일투쟁을 펼친 구체 사례가 무엇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보다 본질적인 강압과 강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 총칼을 들이대기 전부터 이미 사회적 기준 아래 결코 일제총칼보다 약하지 않은 강압과 강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역사에 대한 어느 해석 관점을 가르친 스승을 부정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스승이 죽어도 그 생각은 제자에게 계승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세력이 명분으로 삼은 축적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역사와 정치적 명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시민들은 함께 거대한 마천루를 건설한다. 이 같은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이 담보되어야 한다. 시각은 질문이며 질문은 정직한 증명을 요구한다.

지금 2019년 12월은 3.1민족만세운동 100주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했던 미국의 월슨 대통령은 그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안한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 민족자결주의에 소련의 레닌까지 가세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를 놓칠세라, 파리강화회의에 민족대표단을 파견하려 고군분투할 때 이완용은 고종을 독살했고, 극일 감정은 하늘을

찢렸다. 그 마음들이 모여 도쿄 2.8독립선언으로, 천도교와 동학농민운동, 개신 기독교, 불교, 모두가 연대하여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1일, 민족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3.1혁명의 파급력은 현대 어떤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당시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신음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쳐 '독립운동'까지 중국, 인도, 필리핀, 대만 등에 수출되었고, 우리 민족 피 끓는 청년들이 맨발로 국토를 종단, 만주를 거점으로 한 무장독립투사를 자청한 계기였다.

“대한 독립 만세!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독립은 거세당했고, 26년 후 8.15 해방을 맞이하고도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진 국론 아래 민족상잔의 비극 6.25 민족전쟁의 비극과 마주했다.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묶어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반대로 실패하고, 심지어 군사정권, 독재정치 아래 조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형의 국가체제를 온 국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분단 상태 아래 히스테릭한 반공주의, 악용된 유교문화, 경쟁이 정당한 사회구조가 고착되었다. 독립운동기에 활약한 무장독립운동가, 자본가와 종교지도자, 일제 강점 아래 소신을 펼쳐온 언론사들은 해방된 후 본연을 뒤바꾸었다. 권력에 기생하며 일본과 미국을 등에 업은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명분삼아 친일, 친미를 내면화 했다. 군벌로, 재벌로, 무소불위 종교 단체로, 어용 언론사로 정체성을 바꾸어 착취, 억압의 사다리 위에 군림했다. 아니 군림하고 있다. 기이한 권위주의적 한국의 현재가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2019년 지금까지도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집에 와서는 물! 밥! 외치며 거실 소파에 눕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 반쪽 나라 남한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론 양극화. 세대 간의 프레임 전쟁이 기승을 부리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비극적 세태의 원인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론양극화는 6.25전쟁으로, 6.25는 식민통치에서 주체만 바뀐 독재로 이어졌다. 더구나 지금까지도 일본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가능한 나라로서의 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왕이 살아있는 최초로 연호를 바꾸어 시대적 정체성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정세 역시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걸음이 빨라지는 지금이다.

일반적으로 서사는 귀납적 구조를 갖는다. 관찰된 구체적인 이야기에 관객들이 감흥을 얻고, 그 사이에 어떤 주제를 유추하기 때문이다. 감동과 반전은 관객에게 비로소 사유할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를 서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따지자면 연역적 구조를 시도하는 계

어쩌면 대안일 수 있다. 서사에서 연역적 구조는 '열린 결말'에 가깝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 또한 다양한 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존재가치가 여실히, 있는 그대로 그 빛을 가질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실체와 그 지난한 업적은 항일투쟁의 시기는 물론, 6.25 이후 전 국민이 궁핍했던 시기에서조차 발휘되었다. 최우선의 목적이 오로지 경제 부흥이었을 때, 서울에 국민 전체의 5분의 1을 모아 최대의 생산량을 이룩해 '오직 잘 살기'를 해내기 위해서 일 때 역시 항일투쟁시기에서처럼 똑같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그 시선과 기울이는 노력은 '잘 살기'에서 '제대로 살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제대로 살기'란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다. 잘살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살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보다 창의적인 세계를 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역사를 읽고, 스스로 견주어 바람직한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제대로 살기'에 항일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각 또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결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역사극에 대한 부채 의식은 어쩌면 이 같은 각성에 대한 무지 때문일 것이다.